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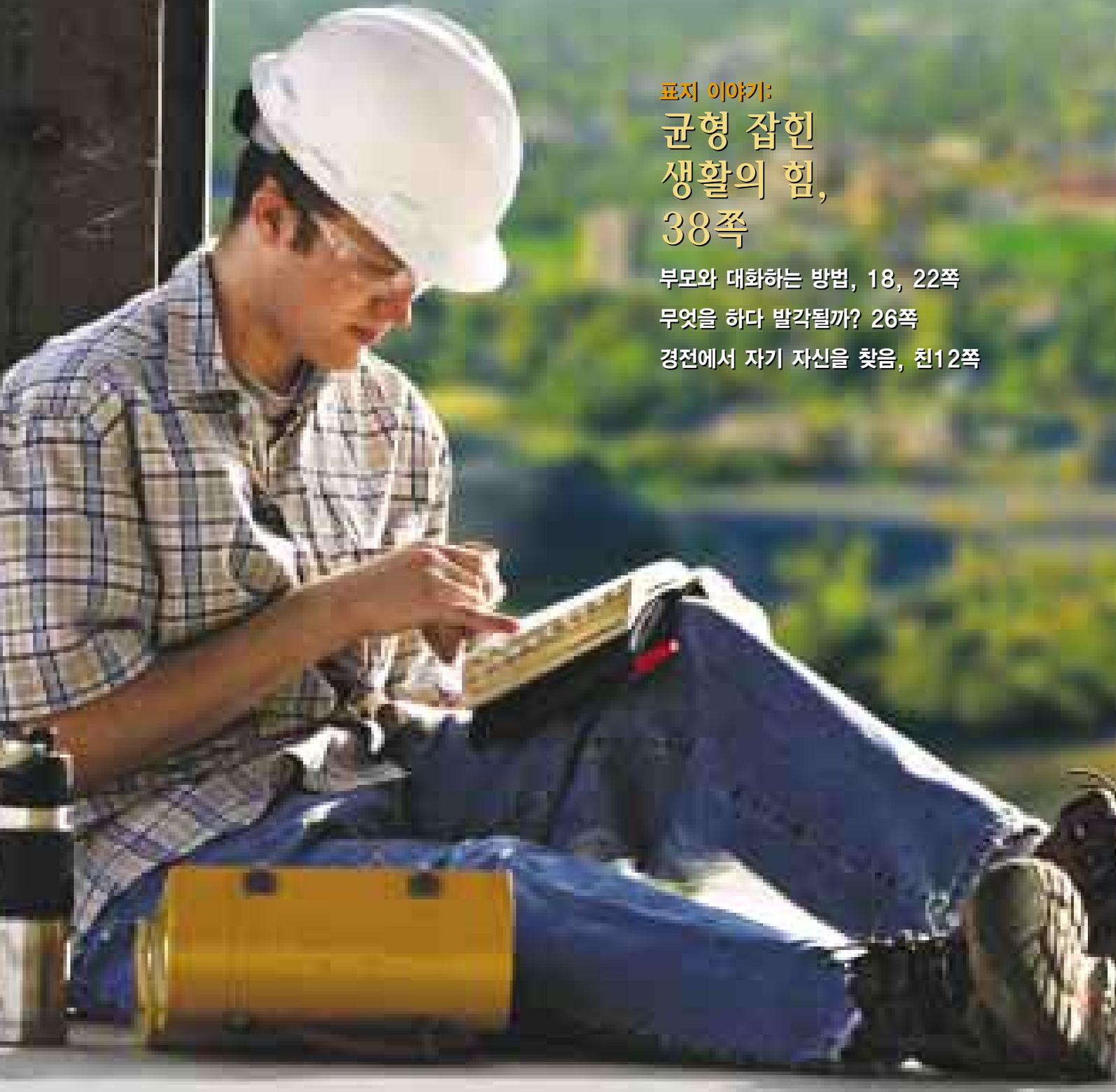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균형 잡힌
생활의 힘,
38쪽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 18, 22쪽

무엇을 하다 발각될까? 26쪽

경전에서 자기 자신을 찾음, 친12쪽





우 리에게는 네 가지
책임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용주,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은 이러한
책임들을 소홀히 할 때나 이
책임들로 인한 중압감으로
압도될 때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서 온다.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함”, 38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심사도장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잰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꾸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빈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넨 포터 콘트, 캐리 카스텐,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로이스, 살리 에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라, 비비안 플론, 조슈아 제이 퍼키, 리차드 엠 플리, Jennifer Rose,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Kimberly Webb

선임 비서: 로렐 튜셔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폴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넬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뵘슨

통 권: 제503호, 제45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운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발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성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지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벵골어, 불가리아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안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별행 횡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08 Vol. 32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14 분노를 자제함



38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함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님의 어린양을 먹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14 분노를 자제함 *더글라스 이 브린리*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에서 중심이 됨
- 26 물문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자유와 영생을 택함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 29 삶을 변화시키는 지도력
- 38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함 *로버트 에프 오펜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질문을 하는 용기 *라이 창 후이링*
경고의 음성 *산드라 게이츠*
나는 축복이 필요했다 *이베스 라울리나*
두 사람의 간증의 힘 *캐티 트루먼*
- 48 애독자 편지

표지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모델이 포즈를 취함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센

26
물문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춘각을 다루는 결정",
8쪽: 희생이란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 토론한다.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찬송가, 18장)온다는 것을 설명한다. 위고의 이야기를 읽고 그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자유와 영생을 택함", 26쪽: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가족들에게 한 가지 주제(예: 교육, 재정, 영양)를 선택하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한 훌륭한 선택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인도해 주는지에 대한 예를 적게 한다. 그런 다음, 그 예들을 함께 나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들, 루이스 파커

교회 회장으로서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은 합당한 회원들이라면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성전에 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그림은 당시 근처에 그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왕복 29킬로미터를 걸어서 여행했던 두 명의 나이지리아 자매들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숨겨져 있는 프랑스어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경전 공부에 의를 선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8 촌각을 다투는 결정
위고 다 쿤하 실반토스 로드리게스
- 11 여전히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피터 제임스 마렐리
- 18 아빠와의 대화 키어스튼 존슨
- 21 포스터: 큰 소리로 기도하라
- 22 질의응답: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 34 간증을 얻음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 43 알고 계십니까?

18 아빠와의 대화



8 촌각을 다투는
결정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너의 의무
다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얻는 힘 린다 크리스티슨
- 친6 가족 역사의 기적 매튜 멩검
-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리하이와 니파이가
하나님께 순종함 발 채드워 베이클리
- 친10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의 다리 수술
- 친12 니파이처럼 세럴리 비 하디
- 친15 특별한 증인: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친16 색칠하기



친12 니파이처럼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함”, 38쪽:
가족 중 한 명에게 여러 개의 커다란
물건 더미를 들고 있게 한다. 잠시 동안
이 사람이 물건들의 균형을 잡느라
애쓰도록 한 다음, 그것들을 담은
자루나 바구니를 준다. 이 물건들과
우리가 가진 책임들을 비교하고,
자루는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일에 비교한다. “영의 인도” 단락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다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 역사의 기적”, 친6쪽: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간식(예:

쿠키)을 만든다. 이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되, 조상의 이름들을 찾느라
기다려야 했던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간식을 만드느라 기다린 것은
이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자신의 가족 역사 탐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을 계획한다.

“니파이처럼”, 친12쪽: 타냐의
이야기를 읽고 니파이는 가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는지 토론한다.
(니파이전서 2:16 참조) 자신의
생활에서 니파이의 모범과 견줄 수
있는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선교 사업, 44
가정의 밤, 1	선택의지, 26
가족, 14, 18, 22, 25	성신, 34, 38, 45
가족 역사, 친6	순종, 11, 친8
간증, 18, 34, 47	시온, 43
개종, 34	신권 축복, 46
경전, 친4, 친15, 친16	십일조, 29
교육, 43	용서, 22
구원의 계획, 25, 26	음악, 21
균형, 38	의를 선택함, 8, 26
기도, 21, 22, 38, 친12	의무, 친2
물문경, 26, 47, 친8, 친12	자기 수련, 14
봉사, 11, 29	조셉 스미스, 친10
부모의 역할, 18	지도력, 29, 43
분노, 14, 22	지혜의 말씀, 26
사랑, 14, 22	초등학교, 친4
사명, 8, 11	회개, 14, 22
상호부조회, 25	희생, 8

주님의 어린양을 먹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서로를, 특별히 복음의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먹이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런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종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들은 해변 가까이에 갔으며,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그물을 던질 곳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계신 주님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숯불에 구어지고 있는 생선과, 떡을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누가 불을 지피고, 물고기를 잡았으며, 음식을 요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 이상의 것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신 이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영적으로 먹이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한복음 21:15)

양육하라는 계명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서로를, 특별히 복음의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회원들을 양육할 능력이 한층 커진 시대에 살도록 축복 받았으며, 따라서 충실한 성도들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전에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몰몬경에는 한때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 하였느니라.”(모로나이서 6:4)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염려해 주었던 것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

신은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상대방이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새로 온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운데 일부는 자녀들로부터 “저랑 같이 교회에 가요.” 또는 “같이 기도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을 키워 주려는 우리의 노력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양육 받기를 원치 않는 그분의 자녀들의 선택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관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를 소망할 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개종자들이 침례의 물로 들어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함으로써,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할 더 큰 능력을 부여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성신을 동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결정될 것이며, 이 성신의 동반 없이는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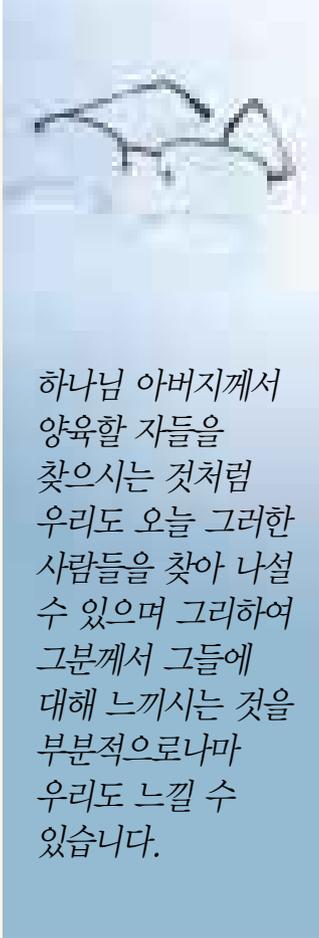
아버지께서 양육할 자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 대해 느끼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회원들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전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녀들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찾고 가르치며 침례 주도록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지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로 하여금 자녀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개종자들을 연약한 어린양으로



보십니다. 그분들께서는 그 개종자들을 위해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부모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슬하를 떠날 나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도움을 줄 자들이 그들을 저버리거나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회원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것이라는 그분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영에 의지함

신회원들에 대해 마음으로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여 우리의 신성한 책임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워 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본다는 것은 영과 그 권능에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겸손을 낳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1801~1877년)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갖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연사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어설픈 몇 마디 말밖에 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같은 어설픈 문장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은 위대한 웅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선한 자들이 보기에 더 진실하고 참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말씀이 비록 몇 마디밖에 되지 않고 그 표현이 어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기도는 키케로[기원전 1세기경의 로마의 웅변가]와 같은 대웅변가의 능변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에 관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면에 마음을 두고 계시겠습니까?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식과 교만과 화려함과 능변보다 주님께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진지함, 정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등으로 충만해진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영원한 원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왕국의 영이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준 영이니라.”¹

어린이는 다른 이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최근에 개종한 사람에게 함께 모임에 가자고 권유할 수 있으며 예배당이나 공과 교실에 들어오는 새로운 회원을 웃으며 반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신은 분명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할 자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 대해 느끼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새로 온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들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다가가는 양육은 회원 이상의 부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준비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신회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리고 공과 토론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강화시킬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열쇠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해야 할 말을 알기 위해 영을 불러들이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경전 공부와 신앙의 기도입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한다면 성신은 우리가 할 말을 알려 줄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들이 성령을 부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가벼운 일상 대화에서나 공과 시간에 교사의 질문에 답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음과 같은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85)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 전체를 빠르고 피상적으로 읽기보다는



하

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참마음 참뜻으로 성신의
동반을 꾸준히 간구할진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이라도 숙고하고 그 말씀을 성신의 역사를 통해 귀한 보물로 만듭으로써 양육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숙고할 때 성신이 함께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로 간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성신은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간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14)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참마음 참뜻으로 성신의 동반을 꾸준히 간구할진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단순한 복음의 교리입니다. 단순하거나 반복적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교리요, 나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만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제3니파이 11:32~35)

계속해서 주님은 그 단순한 교리로 양육 받으며 견디는 자들, 즉 해의 왕국을 상속 받을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묘사하셨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느끼며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 받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양의 연약함

아울러 그것이 교회의 신회원들을 먹이는 우리의 임무에 대해 낙관해도 좋은 이유입니다.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들은 침례 의식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성신을 동반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을 어린양이라고 칭하실 만큼 연약한 그들의 신앙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회원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현명하게 확대시켜 주며, 그 봉사에 대한 성과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격려로 양육한다면, 그들은 성신의 동반으로 강화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지옥의 문이라도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그들의 견디는 힘이 어떻게 자라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온전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어느 정도 분량을 받을 때까지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여, 존 테일러 형제의 말씀처럼 ‘이따금씩’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받은 것을 키우고 소중히 하며 늘 간직하여 모든 선한 생각과 교리와 원리로 고양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한다면,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이 될 것입니다.”²

이것은 모로나이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모로나이서 6:4)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속죄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은 구주이십니다. 신앙으로 침례의 물에 들어가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자들을 양육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을 동반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신회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사랑스런 자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랑과 봉사할 기회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도록 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동반자이듯이, 위대한 선교사 암몬이 그의 선교 사업 동반자들에게 했던 말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받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 복되나니, 이는 너희가 낮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였나니, 너희 곡식 단의 수를 불지어다!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폭풍에 부딪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회리바람에 쓸려질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폭풍이 올 때 제자리에 모여져, 폭풍이 그들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든지 참으로 원수가 그들을 휩쓸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광풍에 밀려가지도 아니하리라.

“또 보라, 그들은 추수하는 주인의 손 안에 있나니, 그들은 그의 것이라, 마지막 날에 그가 그들을 일으키시리다.”(앨마서 26:5~7)

우리는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어린양들, 즉 그분의 어린양들을 양손으로 잡으사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신성하게 추수한 영혼들을 보존하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149쪽.
2. "Discourse", Deseret News, 1857년 3월 25일, 21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중 한 명에게 이 메시지의 첫 세 단락을 읽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먹이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와드(또는 지부)의 신회원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2.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복음 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 그러한 교리들을 그 사람들과 나누거나 그 교리들로 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한다.

3.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양의 사진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왜 어린양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지 물어본다. 사람들은 어린양처럼,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것과 같다. 간단한 봉사를 통해서 이웃이나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도움 계획을 세운다.

손각을 다투는

축구는 내게 손각을 다투는 결정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 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 꿈과 주님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위고 다 쿤하 실반토스 로드리格斯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항상 축구공을 끼고 다녔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부모님께서도 나를 지원해 주셨다. 또한 그분들은 내가 교회에 가도록 격려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커가면서 시합이 없을 때에만 교회에 갔다. 복음이나 교회 활동이나 친구들이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축구에 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훈련을 하면서부터 나는 유명한 축구 팀에 소속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팀들과 같이 축구를 하거나, 함께 훈련 받을 기회도 있었다. 나는 토너먼트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했고,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가능성이 보이자 매우 들뜨게 되었으며 행복해 했다. 한번은 아시아로 원정을 갔는데 이곳에서 내 꿈은 거의 실현될 찰라에 있었다. 어떤 큰 팀이 내 경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나를 그 팀에 합류시키고 싶어한 것이다. 그러나 내 에이전트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고향에서는 몇몇 친구들이 선교사 추천서를 보내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결정

내 가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집에 모였다.
우리는 모두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내 축구
에이전트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말할 때마다 감동으로 빛났고 영 또한 매우 강했다. 나도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면 내 몸의 근육들과 민첩성을 잃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축구에 대한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나의 바람은 원대했기 때문에 나는 대학 공부도 미루고 오직 그 꿈만을 성취하고자 살아왔었다.

축구 시험을 위한 여행을 하면서 나는 항상 물몬경을 가지고 다녔다. 나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방식, 계명에 순종하는 그들의 결심,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 등을 무척 좋아했다. 나는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웠다. 때때로 내가 믿는 바를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항상 “그냥 여행이나 즐기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은 잊어버려. 신나게 즐기자구!”라고 대꾸했다. 나는 축구 인생에서의 험담, 부정직, 기타 다른 면들에 대해 싫증이 나기 시작했고, 외롭고 슬플 때가 많았다. 나는 내가 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를 걱정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활동과 무도회에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함께했던 해외



선

교 사업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배웠다. 선교
사업은 내가 했던 최고의
선택이었다.

왕국의 친구들이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그리웠다.

축구 시합이 없던 어느 일요일, 나는 브라질에
있는 우리 와드에 참석했다. 모임이 끝났을 때
감독님이 접견을 위해 나를 감독실로 부르셨다.
나는 그분이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또래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독님은 내게 선교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셨지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화제를 바꾸려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이 상황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감독님은 그에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에게 선교 사업의 가치를 확신시켜
주셨다. 감독님과의 접견은 선교 사업 준비를
위한 목표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몇 개월 후에 나는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축구 연습도 계속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나는 그럭저럭 축구와 교회가 내
마음속에서 공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선교사 부름장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집에
모였다. 우리는 모두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에서 내 축구 에이전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유럽 축구 팀과
좋은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의 상상력은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이 눈앞에
섰다. 내가 소유하게 될 멋진 집과 차와
연봉이 아른거렸다. 내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그 꿈이 손만 내밀면 잡힐 거리에
있었다. 나는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선교사
부름장을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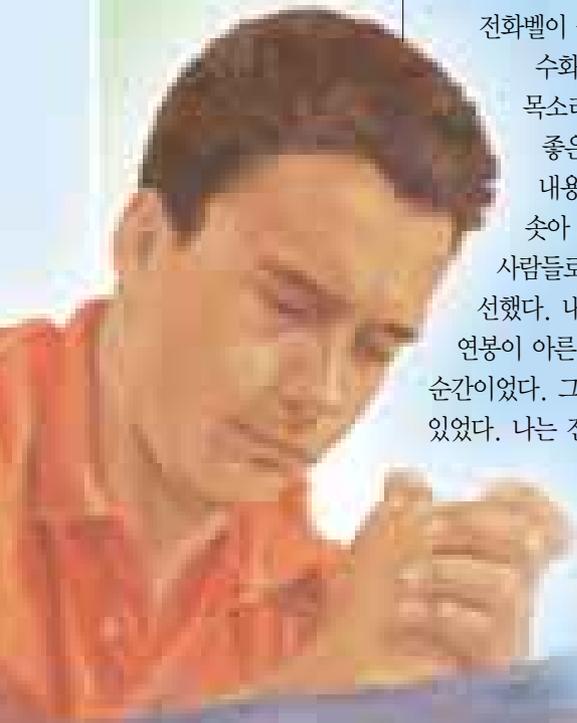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전화에서 에이전트는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나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결정
말이다.

떨리는 음성으로, 나는 이미 더 좋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나는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에이전트에게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것과
지금껏 나를 위해 힘써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런 다음 나는 전화를 끊고 내 방으로
들어간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2년
후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축구에 대한 나의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팀의 일원이다.” 나는 이 말씀을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다.

이제 나는 브라질 포르탈레자 선교부에서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다.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선교 사업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배웠다.
선교 사업은 내 일생에서 내가 했던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팀에 속할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마태복음
6:33 참조) ■



여전히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비록 전임 선교
사업으로부터
명예롭게
면제되었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의미
있게 봉사할 수
있었다.

피터 제임스 마렐리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권고하신 것처럼 나는 단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¹
하지만 나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교회
선교사부에서는 내가 전임선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고
알려왔다. 쉽게 비탄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구주를 섬기기 위해 준비해 왔고 나에게 대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기회

내게 일어난 일은 명예롭게 면제 받음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것은 곧 교회 지도자들이 나의
합당성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을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음을 의미한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봉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지역 교회 봉사
선교사로 말이다.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의 도움으로 나는 집에 머물면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교회의 시청각부에서 도움을 필요로
했고,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
건물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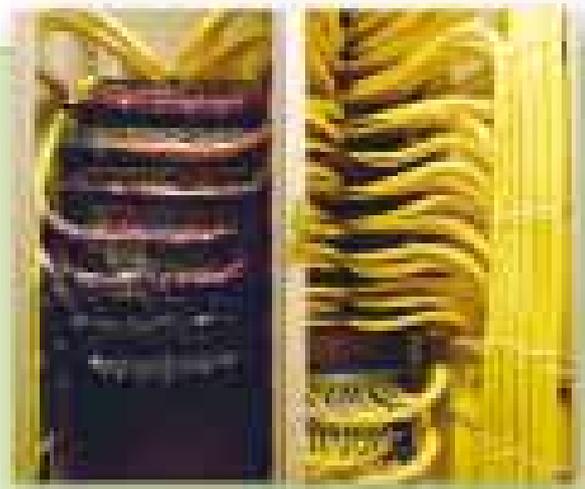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내게 부름을 주고
성별해 주셨으며 내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들을 주셨다. 규칙들이
매우 엄격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들을 지켰을 때
축복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봉사
선교사들은 그들의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다른 규칙들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켰던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내 가 케이블을
 감고 있던,
 방송일을 돕든,
 나의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은
 자신감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어렵고 고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향력과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1. 일정대로 생활한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고, 매일 두 시간 동안 경전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를 공부하며, 매일 30분 동안 운동하고,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든다.
2. 교회의 표준 복장을 입는다.
3. 고전 음악 또는 교회 음악만 듣는다.
4. 컴퓨터 사용은 이메일로 제한하고, 텔레비전 시청을 최대한 줄이며, 비디오 게임은 하지 않는다.
5. 단체 활동에만 참여하고, 단 둘만의 데이트는 하지 않는다.
6. 감독님과 월례 접견을 한다.

때때로 38도에 달하는 건물 아래의 비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케이블을 감으며 앉아 있을 때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 참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곤 했다. 내가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는 전도 선교 사업처럼 봉사 선교 사업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배웠다. 그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나는 봉사 기간 동안 조명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과 모임들의 음향을 담당하는 일, 그리고 장비를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 그것은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연차 대회 모임을 절대로 당연시 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제 어느 방송을 보든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행해지는 혹독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온 몸이 쭈서곤 한다.

선교 사업은 곧 일이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시간 엄수, 책임감, 올바르게 일을 수행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부모님들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지만,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일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교 사업 이전에 나는,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곤 했다. 하지만 일단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봉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는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밖에 내가 배운 것

또한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았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일원인 것일까? 나는 모사이아서 2장 17절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전임 전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임 선교 사업에서 면제를 받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찾아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함께 토론하십시오. 그들은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과 함께 여러분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의 기회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사무실이나 접수처, 또는 컴퓨터 지원 분야에서 일하기
- **복지 시설.** 통조림 공장, 감독의 창고, 데저렛 인더스트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중고품 가게), 취업 센터 또는 기타 복지 시설
- **교회 소유 농장 또는 목장.** 잡일 또는 사무 업무 보기
- **교회 건물.** 건물 관리 돕기

교회 봉사 선교사 시간 외에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침례 성약에 대한 여러분의 결심을 보여 주게 됩니다. 봉사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내가 강점들과 능력들로 축복 받았다는 것과, 열심히 일함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수록 나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는 습관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특히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고향에

머무르고, 사소한 노역을 하고, 이목을 끌지 못하고, 선교부 규칙을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는 일은 “진짜” 선교 사업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나를 도우셨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라. 그런 다음, 언제 어디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주

1.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참조.

분노를 자제함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

더클라스 이 브린리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 역사 및 교리 교수

내가 여러 해 동안 결혼과 가족에 대한 수업을 가르면서 학생들이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쓴 글을 보고 분명하게 알게 된 점은, 절제되지 않은 분노가 결혼과 가족 관계에 있어 엄청난 파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를 내는 죄(조셉 스미스 역 성경, 에베소서 4:26)는 관계뿐 아니라 인격도 해친다.

의로운 분노나 잘못을 시정하는 일은 분명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없다. 경전은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항상 파괴적이고 정신을 황폐케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노는 결혼과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주요 도구 중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사탄을 “분쟁의 아비”라고 부르셨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제3니파이 11:29) 구주는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제3니파이 11:30; 강조 추가)

분노를 격려로 대체함

내가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 중 하나는 그들의 가정 환경에 대한 작문이다. 특별히 나는 그들에게 부모님의 장점과 약점 및 결혼 생활에 대해 묘사하도록 요구한다. 학생들의 작문에 언급된 가족 생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정적 요소는 아마도

아버지의 성미일 것이다. 물론 나쁜 성미가 아버지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교회의 부름에 적극적이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몇몇은 여전히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육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거의 모두가 부모님의 지적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생 나이의 학생들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가족 생활을 돌아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평가한다. 많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셨더라면 하고 바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또 많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다.

한 젊은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소리 지르고, 위협하며, 자녀들을 심하게 때리곤 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낮에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숨어있곤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부친이 취했던 접근 방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던 한 아버지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그분에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스스로 알게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습니다.”¹

자녀들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들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학대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매가



아

버지는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좀 더 나은 사람과
남편,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영향을
주는 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주

남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분노와 관련된 문제는 복음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필요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모범이 필요합니다.”²

분노하여 자제력을 잃고 확대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런 사악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남성은 하나님의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범하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남성은 주님의 집에서 부여되는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몇 남성들이 아내와 자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유감스럽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³

헝클리 회장은 그러한 아버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는, “여러분 자신을 통제 하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를 자제하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결과만을 낳을 뿐이지만, 여러분의 분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과하십시오.”⁴라고 말했다.

이로운 모범의 힘

이제 한 젊은 청년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쓰도록 영감을 준 모범적 행동을 살펴보자.

“나는 아버지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게 그것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있어, 올바른 후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살아 있는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야 할 것처럼 훌륭한 모범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내려야 할 모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준다.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의로운 아버지에 대해 더욱 더 감사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삶을 내게 보여 주신 아버지께 영원히 빛을 진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좀 더 나은 사람과 남편,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영향을 주는 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느낌을 자아내지 못한다. 대신, 많은 경우에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어두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비탄만을 야기한다.

분노의 통제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은 수년이 걸리면서도 미미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일종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분노와 관련된 문제는 복음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된 교리에 대한 이해는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행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⁵

회개의 교리는 특히 분노에 관련된 죄에 적용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속죄의 치유하는



힘을 가져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으며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 하나는 ‘회개하는 데에는 영겁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여러분이 진심으로 ‘난 달라질거야’ 라고 말하는 시간만큼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보상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여러분의 회개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 성장, 회복, 회개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즉각적으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⁶

분노를 통제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면서,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분노에 차서 내뿜은 가혹하고 잔인한 말로 인해 생긴 상처의 깊이나 고통을 그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리는 한 남자가 평정심을 잃는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모든 결혼 생활에는 이따금씩 불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원인으로 폭발하는 분노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폭력적인 분노는 우리 정신을 황폐케 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또한 폭력에서 오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분노가 그 어떤 선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적의와 모반과 고통으로 사악함만을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남성 또는 소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⁷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여 부모의 모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를 자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가 원만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인내심으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분노를 정복하는 일은 현재뿐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미래에도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

주

1. “Save the Children”, *Ensign*, 1994년 11월호, 53쪽.
2. *Ensign*, 1994년 11월호, 53쪽.
3. “Women of the Church”, *Ensign*, 1996년 11월호, 68쪽.
4. *Ensign*, 1996년 11월호, 68쪽.
5.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9쪽.
6. “For Times of Trouble”, *New Era*, 1980년 10월호, 11~12쪽, *Tambuli*, 1982년 1월호, 9쪽.
7. “Our Solemn Responsibilities”, *Ensign*, 1991년 11월호, 50~51쪽.



아빠와의 대화

키어스튼 존슨

우리는 이제 막 할아버지 할머니의 별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쳤고, 나는 밖에서 다섯 명의 남동생들과 놀고 있었다. 그때 아빠가 밖으로 나오시며 나를 부르셨다.

누구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부르실 때는,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은 없는지 겁이 나게 마련이다. 나 역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아빠?”

놀랍게도 아빠는 “같이 오토바이 타러 가지 않겠니?”라고 물으셨다. 내가 얼른 “네, 당연히 가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을 때, 내 눈은 분명 골프공만큼 휘둥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 오토바이를 몰고 별장을 둘러싼 장대한 숲속으로 굽이굽이 흘러 언덕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길을 달렸다. 아빠는 이내 앞장 서셨다.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과속할 뻔했기 때문에 두어 번 아빠가 내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씀하셔야 했다.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 남동생들은 받지 못한 이 특별한 대접을 왜 나만 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우리가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곳이 쉬기에 좋은 장소 같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숲이 내려다보이는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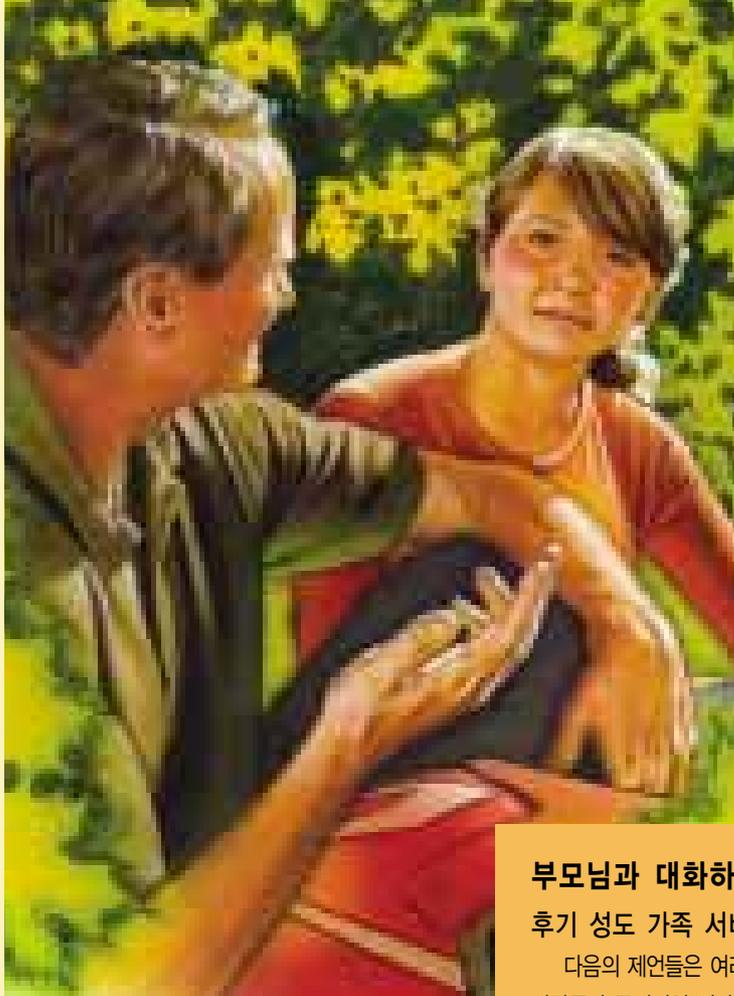
위에 걸터앉았다. 우리는 둘 다 잠시 동안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느라 말이 없었다. 아빠를 힐끗 쳐다봤을 때 나는 아빠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빠와 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도 엄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빠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말을 걸어 오셨다. “키어스튼,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가 우리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도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느꼈단다.” 나는 아빠가 사용하시는 단어들과 말씀하시는 태도를 통해 그분이 이러한 대화를 갖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 “엄마와 나는 소방서에서 처음 만났단다. 나는 소방 견습생이었고 엄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셨지. 우리는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나는 엄마가 내가 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다른 교회에서 성장했던 나는 근심 걱정 없던 청년이었고 종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단다.”

“그 당시 나에게는 가치나 목표라게 거의 없었고, 또한 그것들에 전혀 신경쓰지도

나는 아빠와 단둘이 오토바이를 타러 가게 되어 너무나 흥분되었다. 우리는 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않았다.” 아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내게 계속 말씀하셨다. “키어스튼, 엄마는 내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삶의 모범을 내게 보여주었다.”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아빠는 결혼 생활과 나의 출생,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우리 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다. 아빠는 자신의 개종 이야기와 아빠와 엄마가 일반 결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인봉되기 전, 1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또 아빠와 엄마가 결혼 첫해에 경험했던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비로소 내가 전부터 갖고 있던 몇몇 궁금증들이 풀렸다. 나는 그제서야 왜 결혼 날짜와 인봉 날짜가 다른지, 그리고 왜 결혼 첫해가 그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빠의 눈은 슬픔으로 깜박이기도 하고, 웃으시느라 눈가에 주름이 잡히기도 했다. 그 당시에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번갈아 나를 감쌌던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사랑의 느낌을 또렷이 기억한다.

이 경험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나는 가족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지 깨달았으며,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큰 이해력을 가져다주었다. 또 나는 복음에 대한 더 큰 신앙과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그 산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빠가 하나님과 복음, 엄마와 우리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한 감사함과 기쁨을 가슴속 깊이 느꼈다. 나는 복음이 내 삶에 그랬던 것처럼 아빠의 삶에 영향을 준 수많은 방법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빠와 나는 굉장히 가까워졌다. 처음으로 나는 아빠를, 그저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지배자가 아닌, 느낌과 감정이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나는 아빠도 나에게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빠와 가졌던 특별한 대화와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과 이해의 느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부모님과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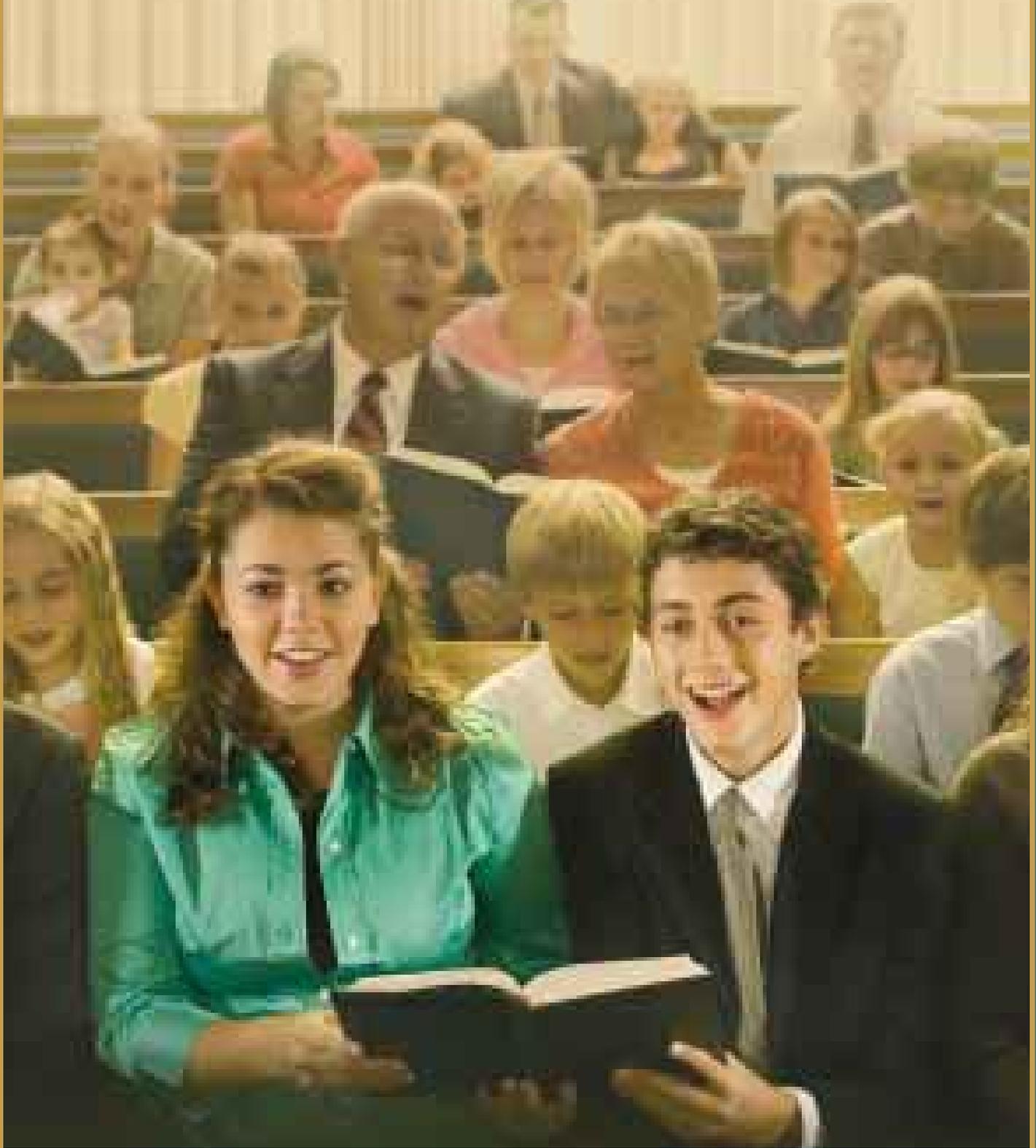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다음의 제언들은 여러분이 부모님 및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 마음을 여십시오.** 때때로 좋은 의사소통의 기회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 **마음을 다해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관심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경청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여러분이 듣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요약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은 양쪽 모두가 오해 없이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부모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느낌이 있으며 여러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할 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주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교리와 성약 25:12)



질문의 응답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모녀 관계 혹은 모자 관계는 큰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렇지만 사이가 좋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어머니와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둘 다 맘이 진정되었을 때 대화를 하십시오. 본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자주 다투는 문제들에 대해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 놓아 보십시오. 이때 어머니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정한 어조로 말하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화를 나누기, 차례를 바꾸어 가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 주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들을 정하여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한 번에 한 사람이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여러분과 어머니에게 성신이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어머니와 좀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리아호나의 대답들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력이 사용되고 있다면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상의하여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위에 열거한 일들을 할 때 성령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하는 행동 중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의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타인을 좀 더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기도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게 간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좀 더 큰 사랑과 이해심으로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마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좋은 면만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칭찬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방법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어머니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누가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임무를 주셨으며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족의 규칙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노력한다면 조만간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아서 7:47)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 동반자와 잘 지내기가 어려울 때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비 폰티어스 장로, 21세,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분을 고맙게 여긴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느끼실 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어머니가 집안일 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세요. 즐거운

행사에 함께 가시도록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라는 말 한 마디입니다.

지나 지, 19세, 필리핀 바실리안

저는 최근에 어머니와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말투는 화를 돋구지만 사랑이 담긴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적어도 상황을 호전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가 정말로 항상 옳으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행여 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이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면 모든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페르난도 브이, 18세, 브라질 상파울루



하루는 제가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경전을 펼쳐 사랑에 관한 구절을 읽어 보았으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셨는데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 베개 위에 쪽지를 한 장 남겨 놓으셨습니다. 쪽지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제가 집안일을 좀 더 도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쪽지를 읽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너무나 죄송하다는 것과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씀드리며 안아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경전이 말해 준 사랑의 메시지는 그 이후로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며, 어머니께 친절할 말을 함으로써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분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면서 그분의 좋은 점들만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라쿠엘, 21세, 프랑스 부르그뉴



한 번쯤 날을 잡아서 엄마와 단 둘만의 하루를 보내 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며 서로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보세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드리세요. 곧 서로 마음이 맞는 점을 찾게

되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리디아 에이치, 14세, 미국 아이오와 주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는 가끔씩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모든 소망과 꿈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며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사랑과 존경과 친절로써 그분들을 대하십시오. 가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한 번씩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 “영감을 주는 생각들”,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쪽.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언제나 언쟁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하는 방식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다투려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될지를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린 에이치, 17세, 타이완 타이중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둘 다 좋아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찾아 함께 해 보세요. 아니면 함께 배워 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엄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게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여쭙 보세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카일리 에스, 12세, 미국 유타 주

이곳에 실린 대답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사람들이 제게 술이나 마약을 권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남에게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로 2008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3/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dl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와드 (혹은 지부) _____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 _____

나는 답변과 사진을 인쇄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부모 서명 (18세 미만인 경우) _____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에서 중심이 됨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선택하여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바를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왜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에 관한 교리는 하늘의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

태초부터 하나님은 가족을 제정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영원한 결혼 서약으로 인봉되었습니다. ...

합당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열쇠들의
회복과 신권 권세를 통해 영원한
가족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주님께서는 성스러운
다음 구절을 통해 그에 대한 약속과 요구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쁨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할지니라-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 기록될 것이요, ...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2:19)

...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안에서 생기는
유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면 가족애와
가족간의 정은 영원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영원한 가족”, *Ensign*,
1996년 11월호, 64~65쪽)

가족이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족이란 단위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서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미리 연습한 것을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성약과 충실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묶어 주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가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받고자 원하는지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실
것이며 그 영감에 따라 행동할 때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을 도우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가족”,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3쪽)

마가렛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호와 가르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삶의 모든 면을
통해 보여 주는 우리의 개인적인 순종과
모범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음 공과가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십시오.”(“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4~75쪽) ■





자유와 영생을 택함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자유와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저는 집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신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감시를 받는 집을 떠나 외지에서 자유를 만끽할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농구팀에 속해 있었으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첫 학기 첫째 주에 저의 팀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토요일 밤에 도시 외곽의 사막 지대에서 열리게 될 신입생 환영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술을 마시는 파티인지 물어 보았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에는 웬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 그 파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도덕적 표준을 가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제 팀 동료는 그의 승용차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자 우리는 사막을 장시간 운전하여 간 끝에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 파티의 주요 행사는 바로 술 마시기였습니다. 그 주에서는 음주가 허용되는 법적 연령이 대부분 신입생들의 나이보다 세 살이나 더 높았는데도 말입니다. 저의 데이트 상대는 도착하기가 무섭게 저의 팀 동료와 그의 데이트 상대와 더불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만을 표시하자 그들은 저에게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즐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으며 지금에 와서 술을 배울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곧 저를 혼자 남겨 두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 버렸습니다.

저는 음주와 경박한 웃음 소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서 교통 수단도 없는 제 처지를 한탄하며 내가 어찌다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저는 문득 사막을 가로질러 자동차 전조등들이 줄을 지어 파티장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들은 사람들을 둘러싼 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천장에 달린 불을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찰차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막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내 곧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제가 앉아 있던 곳에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경찰들은 학생들의 연령을 파악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음주 측정기를 붙게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경찰관에게 그날 밤뿐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제가 정말로 믿어도 된다고 재차 강조하자 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음주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제 팀 동료의 차를 타고 대학교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법정에 소환되어 벌금을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

저는 아무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그곳을 나와 일요일 새벽 3시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와드의 신권회는 오전 7시에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알람 시계가 울렸지만 저는 알람을 끈 후 돌아누워 잠시 동안 그날 아침 신권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온갖 핑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누워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복장을 한 후 예배당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모임 시작 1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던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도 없이 저를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슬며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손을 제 무릎 위에 힘있게 올려 놓으시며 저를 향해 몸을 숙이시더니 제 귀에 대고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뜻이 담긴 말씀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여기에 있을 줄 알았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제 영혼의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사랑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받은 메시지는 항상 제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자유

그 경험은 오래 전 리하이가 그의

저는 경찰관에게
그날 밤뿐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제가
정말로 믿어도 된다고 재차
강조하자 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주었던 영원한 진실에 대한 한 예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자녀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후서 2:26~27)

선택의지의 사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책임과 심판 역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의 농구팀 동료들 비롯하여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낳을 결과까지 선택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날 밤 유치장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또 일부는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을 옥죄고 있는 무분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위 자유를 갈망하며 취하는 잘못된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가인은 그로 인해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저주

받고 고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모세서 5:32~39 참조) 베드로는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일컬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인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베드로후서 2:17, 19)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한 자유의 길에 관해서도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므로] 우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나니(베드로후서 2:9, 20)

레이맨인 사무엘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 또 [우리]에게 생명이니 사망을 택하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힐라맨서 14:30~31)

저의 팀 동료가 그날 밤의 파티가 어떤 모임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았을 때 저는 영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 느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자 저는 제 동료보다도 제 자신을 더욱 실망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티의 취객들을 멀리했을 때 영적인 위안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경찰관이 저를 집에 가게 해 주는 축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안식일 아침 저의 기숙사 방에 홀로 있을 때에 찾아 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값진 보화를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동반된 그러한 경험은 영생의 축복과 연관된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도력

세계 전역의 후기
성도들이
지도자로서
봉사하거나 또는
지도자의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지도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한 사람을 위한 지도자

열두 살이 된 나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우리 와드의 유일한 청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독님은 청남 회장단을 조직하라는 영감을 받으셨다.

청남 회장은 “한 명의 청남만을 데리고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오직 한 명만을 위한 활동을 계획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다. 청남 회장단은 등산, 캠핑, 스카우트 활동, 화요일 저녁의 상호 향상 모임, 일요일의 공과, 샌드 보딩, 그리고 해변에서의 활동 등을 계획했다. 얼마 후 두 명, 세 명, 그리고 네 명의 청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청남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름에 충실하고 단지 한 명의 청남인 나에게 기울인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 나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 와드의 청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른 청남들도 그렇게 되었다.

그레그 베고인, 남아프리카

조금씩 조금씩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움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나서 몇 주 후에 나는 멕시코 발레도라도 와드의 초등학교 서기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고 놀랐으나 구주를 사랑했기에 봉사하고 싶었다.

나는 나 외에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름에 봉사하면서 결국 그 부름이 영감 받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나는 복음의 원리와 아름다운 찬송가와 신앙개조를 배웠다. 또한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가르침은 초등학교 회장과 그녀의 보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게 되었다. 그들은 인내로써 나를 도와 주었고 실수를 용서해 주었으며 나는 조금씩 조금씩 부름을 완수하는





가 장 큰 가르침은
초등회 회장과
그녀의
보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게 되었다. 그들은
인내로써 나를 도와 주었고
실수를 용서해 주었으며
나는 조금씩 조금씩 부름을
완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3년 동안
초등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해임된 후에도 상호부조회에서 함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2년 더 함께 봉사했다. 그
자매들은 나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자매들이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다. 우리는 비축 창고를 공유했고, 한
목적으로 금식했으며, 함께 성전에 갔다. 그
자매들은 내가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 주었다. 나는 나를 훈련시켜
준 그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다른
자매들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배운 것을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로라 비가 달바, 멕시코

한 마디로 말해,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난 3주 후에,
아아라 감독님은 나를 접견하면서 나의 발전
상태를 물어보셨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두 번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읽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 원리 교재도
읽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감독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님을 마음에 두시고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부름을 주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반의 청소년 대부분이 나보다 고작 몇
살밖에 더 어리지 않으며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나는 감독님께 “저는 그런 부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감독님은 “로베르토, 이 부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형제님의 능력과
충실함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매우 힘있는 어조로
대답하셨다.

나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우겼다.

감독님은 내 눈을 똑바로 보시며 고요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형제님께서 이 부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서 형제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저는 형제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랜 침묵이 뒤따랐다. 그런 후 감독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로베르트, 이 교회는 겁쟁이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나는 갑자기 마음속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감독님, 제가 언제 시작하면 됩니까?”

감독님은 나를 껴안고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형제님이 이번 주에 첫 번째 공과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로써뿐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치신

그런 특별한 지도자인 감독님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기뻐했다.

나는 이 경험을 나의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그리고 다른 부름에서 봉사하는 동안 자주 떠올렸다.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로베르트 카를로스 파체코 프레텔, 페루

헌신적인 집사들

과테말라에 사는 처제 중 한 명이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 아내와 나는 처제를 위해 기도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 후 나는 내 모국인

과테말라로 사업차 여행하는 중에 처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도력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

테라스에서 장인 어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12세 된 와드의 청남 한 명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다. 그 청남이 지나간 후 장인 어른이 말씀하셨다. “며칠 전에 저 아이와 같은 또래의 다른 두 청남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그 청남들 셋이 모두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우리 집을 방문한거야. 나에게 인사한 후에 놀랍게도 그 청남들은 딸을 만나려고 거실로 갔어. 그리고 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 그 청남들은 비록 자신들이 집사이어서 축복을 줄 수는 없지만 내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

그 세 명의 청남들이 무릎을 꿇고 훌륭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딸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지. 그런 다음 그 청남들은 일어섰고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후 떠났어.



“그런데 말이야”라고 장인 어른이 말을 이었다. “그 청년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인해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네.”

다음 날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정장을 입고 성찬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청년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 대해 경의와 존경심을 느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그들과 악수하러 갔다. 그들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손에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들어올려 줄 만한 큰 힘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봉사와 사랑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 준 그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요스카 아바드 구티에레스, 유타

우리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시겠다고요?

교회의 회원이 된 이래 나는 계명을 지키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후기 성도가 아니셨던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십일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서는 서랍 안에 십일조 낼 돈을 따로 챙겨 두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돈을 돌려드릴 날이 되었을 때, 그 돈은 그곳에 없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돈의 행방을 묻자 어머니는 주님은 그 돈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써버렸다고 대답하셨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으며 어머니와 말다툼하지 않았다.

나는 십일조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슬펐다. 십일조 결산을 하러 감독실에 갔을 때 감독님은 내게 완전한 십일조를 냈는지 물으셨으며 나는 어머니가 나의 십일조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낼 수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독님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망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런 후 감독님은 접견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수요일에 어머니를 모셔 오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그러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 주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머니가 교회 회원도 아니신데 어떻게 감독님과 접견을 하기 위해 모시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그 초대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수요일이 되기까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에 혼자 가기 싫은데 함께 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페이토사 감독님은 어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하시며 감독실로 안내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감독실에 계시는 내내 매우 걱정이 되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는 감독실에서 나오셨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는 나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매달 십일조를 내거라”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찼다. 주님은 이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려는 나의 소망을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어머니는 그 이후 교회의 회원이 되셨다. 어머니는 십일조를 내시면서 나도 십일조를 내는지 확인하신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는 모두 한 명의 영감 받은 지도자가 우리 어머니에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실함에 관해 말씀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에바닐다 고메즈 도 나씨멘토, 브라질

그에게 가서 말하라

1998년에 나는 와드 청년 회장으로서는 스테이크 청소년

주님의 손에 든 도구들



“지도자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변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되어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또한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These I Will Make My Leaders”, *Ensign*, 1980년 11월호, 35쪽.



대회에 참여했다. 활동이 끝나 쉬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모르는 한 청남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야영지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독에 홀로 앉아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한 후 그의 이름을 물었다. 우리가 나는 대화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 대화는 다음 활동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특별한 대화였다. 나는 그 후 그 청남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다시는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2005년 8월에 스테이크 센터에서 한 모임이 있었다. 그때 바로 그 청남이 내게 다가오더니 편지를 한 장 건네주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오늘 1998년경에 산마틴 공원에서 나는 대화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혼자 앉아서 약간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저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 ... 교회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

교회 활동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을 잃어버릴 것인지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강하게 남은 한 가지 말씀은 제가 쓰러지면 저의 온 가족도 함께 쓰러지게 될 것이지만, 제가 계속 전진한다면 그들 또한 함께 전진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제 마음속에 가족을 돕고자 하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 우리가 그 대화를 가졌던 그 날 이후로 저는 주님께 충실하겠다고 결심했으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충실하고 저의 가족도 복음 안에서 굳건하고 주님께 충실합니다. ... 저에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 그 대화가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결코 모르실 것입니다.

이 청남은 현재 귀환 선교사로서 성전에서 결혼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도자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알레한드로 훌베르토 비아레알, 아르헨티나

어 머니가
십일조를 내지
못하게
하신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리자 감독님은 접전을
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셔
오라고 부탁하셨다.



간증을 얻음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우리 가족은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집에서 듣는 것은 그리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지만 전형적인 후기 성도 가정에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가지거나 함께 모여 가족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 친구들이 익숙해 하던 교회의 많은 관행들이 제게는 약간 낯설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저는 세미나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나눌 법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또한 수줍음을 잘 타는 15세 소년이었기에 300명의 세미나리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기에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리 모임에서 일어나 간증을 전하라고 했던 가슴 벅차오르는 영의 속삭임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가 참되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제가 받았던 느낌, 즉 마음이 뜨거워진 그 느낌만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참됨을 간증했을 때 제게 임했던 성신의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도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았다고 생각했으며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을 뿐 아니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저에게서 그 간증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리에서 간증을 한 그 날 이후로 저는 수없이 저의 간증을 나눠 왔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여러 번의 경우를 기억하지만 제가 십대 청소년이었을 때 가진 그 첫 번째 경험처럼 그렇게 극적이고 제 미래를 형성해 가는 데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명을 준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제 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이 이 지상에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데 쓰이게 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로 그 나이 또래였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전함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그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간증으로 저는 봉사하고자 하는



저는 수없이 여러 번 간증을 해 왔지만 수줍은 십대 청소년으로서 300명의 만원 앞에 섰던 그 당시의 경험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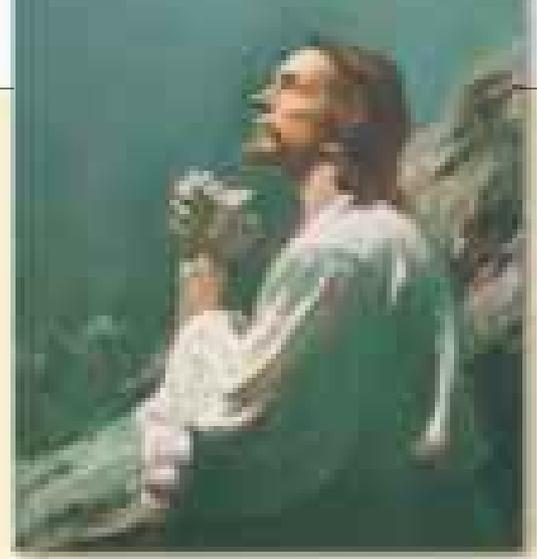
그분이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고자 했으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나은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경전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저의 소망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더 큰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지식이 저를 놀라게
했고 저를 변화시켜 준 중요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지식 안에는
커다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좀 더 잘 도와
주실 수 있도록 제게 몇 가지 특성과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음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께서 또한
저의 가정에서는 권하지 않았던 선교
사업에 관해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십 대
청소년으로서 저는 선교 사업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전한 경험으로 인해 저는
선교 사업에 대한 저의 소망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다른 많은
경험들이 그러한 소망을 키워 주었지만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분의
자녀들과 나누기 위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간증을 얻는 과정은 구주께서 방문하셨을 때 니파이인들이 겪었던 경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귀로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자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제3니파이 11:5~6)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없었던 독특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신이 이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은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것이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에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 속에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즐겁게 보낼

간증을 강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설레는 시기 중 하나인 십대 청소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선교 사업이나 성전 결혼이나 그 밖에 여러분이 장차 인생에서 갖게 될 놀라운 경험들의 가치를 반드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십대 청소년으로서 인생을 즐겁게 보낼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거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각각의 계명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제일회장단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에 차며 다시 여러분을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내 뒤따를 많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계명과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¹

우리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입니다.”² 우리 모두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기는 가슴설레는 때입니다. 또한 신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 활동은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참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마음속의 느낌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한 느낌에 의지하며 이를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더불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여러분이 맺은 성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신화의 일원인 성신으로부터 지시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이 위대한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의 열매를 향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십대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은사를 받았습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살아있고 계속 성장하는 증거와 간증입니다. 제가 그 간증에 영양분을 공급하자 그것은 끊임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는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랬듯이, 십대 청소년으로서 바로 지금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01), 2쪽.
2. “각자 더 나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9쪽.

균형 잡힌 생활을 영위함



로버트 에프 오펜 장로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함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교육의 기회, 결혼,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되는 행복을 주는 삶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추구하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균형을 찾음으로써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이란 영적, 지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균형이란 정신적, 정서적인 안정으로 정의되며, 조화 또는 일치성을 가져옵니다.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만나는 도전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균형과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균형을 찾고 유지하고자 할 때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빌려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¹

한 미혼 학생이 묻습니다. “경전과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불필요하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물 여섯의 나이에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할 직업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결혼 문제를 미루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젊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숨돌릴 틈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때로 세상과 교회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표시된 것 이외의 사진: 로널드 두루마, 모델이 포즈를 취함





못할거예요. 저는 자신감을 갖는 것과, 해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한다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하지 않는데서 오는 죄책감, 실망, 좌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신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업을 끝까지 마치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숙제도 교회 봉사도 할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맛벌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젊은 아버지가 덧붙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교회 부름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올해만 잘 넘기면 돈을 충분히 벌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공허한 생각입니까. 인생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내일은 시간이 더 있고 책임이 덜할 것이라고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에 닥칠 일을 대비하십시오.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결혼과 가정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기 위한 준비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를 잊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오 입니다. 위에 제시된 모든 어려움에 대해 여기서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의 필요성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이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또는 어디에 속한 것이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²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리와 성약 93:36)이며 “이 생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난다]”(교리와 성약 130:18)고 밝혔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복음의 한 단면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식단에는 한 가지 이상의 반찬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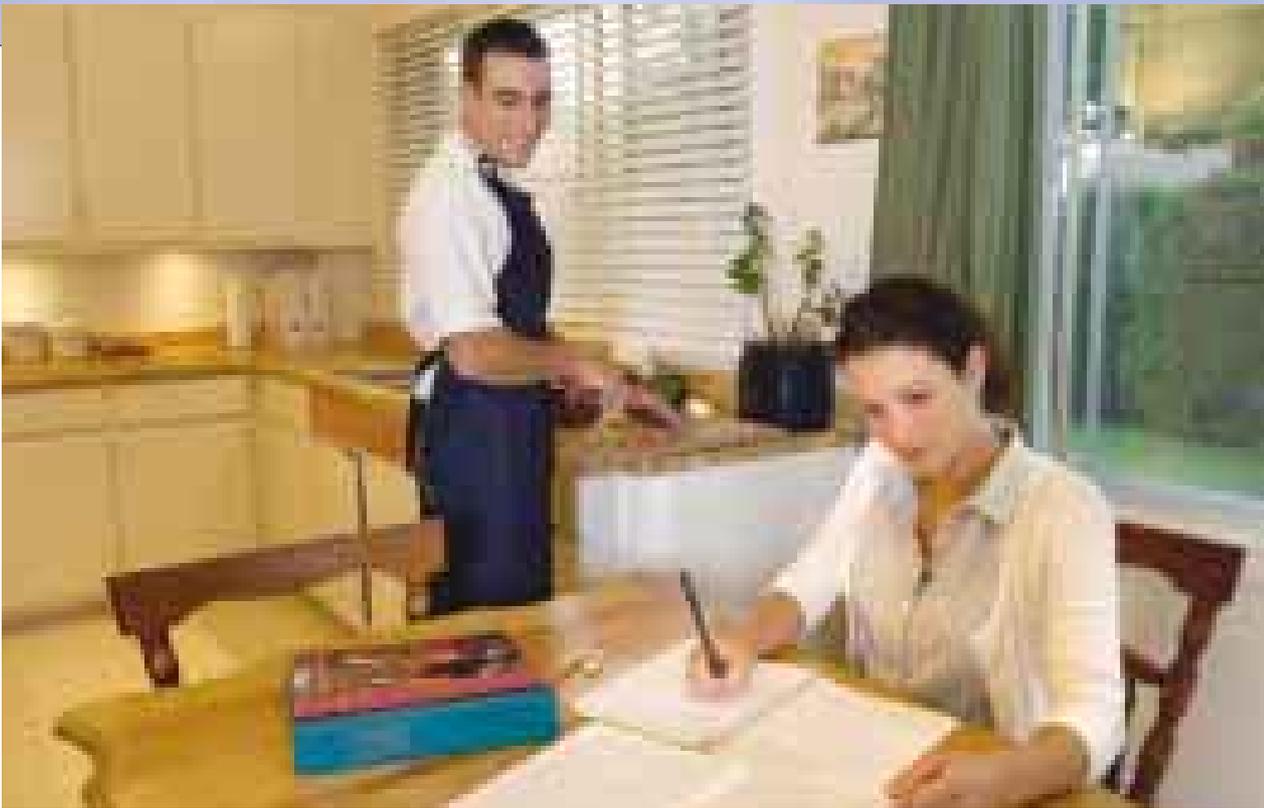
“... 집착을 조심하십시오. 편협함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많은 훌륭한 분야에 두루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³

헝클리 회장님은 또한 우리에게 네 종류의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가족, 고용주,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분은 “잠시 시간을 내서 명상하고, 또 시간을 내서 운동하라”⁴고 권고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일어나서 유의 사항들과 함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기내에 기압이 떨어질 경우, 여러분의 머리 위로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것입니다.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분을 동반하신 분은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쓴 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의식을 잃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에게 하는 봉사, 교회 봉사 및 일터에서 하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1920~2007)도 “의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모사이야서 3:19)을 받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육에 속한 남자나 여자의 특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

“넓은 의미에서 균형이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변하지 않을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⁵



개인적인 세 가지 경험

저는 인구가 1,500명인 유타의 작은 마을 팡귀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작은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장학금을 받고 브리검 영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는 제가 거대한 연못의 작은 물고기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고 용기가 꺾였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 가서 학교가 아닌 고향 집 근처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적으로 높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 해 말까지도 저는 “이 학교는 나와 잘 맞지 않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여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쯤 되자 저는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남학생 사교 클럽과 봉사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가는 대신 학교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이 즐거운 것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저는 법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첫 해는 힘들었는데, 제가 학부에서 전공한 것과는

다른 분야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성적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2학년 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법률 회사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2학년 말에 저는 제 아내인 조이와 결혼했습니다. 추가적인 책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제 성적은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마지막 경험은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의 일입니다. 어느 노련한 고참 공판 변호사가 제게로 와서 “밥, 자네가 성공적이고 유능한 공판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활동적인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일 수는 없을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법조인이면서 교회에서 활동적인 다른 분들을 생각하며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은 공판 변호사로서의 제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사실, 저에게 더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삶에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명하신 일을 하려 노력했고, 그분은 저에게 더 큰 힘과 이해력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의 인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해답을 영의 속삭임을 통해 얻을 경우, 균형과 행복을 이룰 수

우 리 생활에서
영적, 지적,
육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건들 사이의
균형은 영생과 지속되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 주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영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영의
동반과 우리가 찾는 해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선, 매주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받들 것을
성약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찬 축복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 줍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교리와 성약 20:77)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성신의 동반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며, 성신은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기꺼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요한1서 4:18)

우리가 주님께 영을 간구하고,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구한다면,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학업을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것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도와 줄 것입니다. 또
평안과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릴 때 너무 빨리
포기하곤 합니다.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교리와 성약 107:25 참조)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기슴속의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며 맺는 성약을 지킨다면, 그분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노력하고 영의 속삭임에 성실히
응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06년 5월 1일, 후기 성도 실업 대학 (LDS Business
College)의 특별 모임에서 하신 말씀

주

1. “Keeping Life’s Demands in Balance”, *Ensign*, 1987년 5월호, 13쪽 참조.
2. *History of the Church*, 5:499.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31~32쪽.
4.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33쪽.
5.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성”,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 7쪽; *Ensign*, 2000년 3월호, 2, 4, 5쪽.

알고 계십니까?

여왕의 금메달

노르위치 잉글랜드 스테이크 킹스 린 와드의 크리스토퍼 빙고는 어린 시절에 입은 심각한 뇌 손상을 극복하고 지난해 상급 과정 시험 여섯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대학 입학 시험과 학력 상급 과정 시험 여섯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훌륭한 성과로 크리스토퍼는 학업 성취에 대해 여왕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았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크리스토퍼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크리스토퍼는 “그분은 친절하고 함께

이야기하기 편한 분이었어요.”라고 말한다. 지금 그는 영국 리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여왕에게 교회를 위한 선교 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했다.

여섯 살 무렵 크리스토퍼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다. 그는 5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고 뇌에 응혈이 생겼다. 그의 회복은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사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농담으로 “그 사고로 머리가 더 좋아졌는지도 모르겠군요.”라고 말했다.



사진: 빙고 가족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단어에 숨은 뜻

시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업을 굳게 세우라”(교리와 성약 6:6)고 명하셨습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정의는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6:6)입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종종 주님의 백성 또는 교회와 그 스테이크들(교리와 성약 82:14)을 칭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그곳에 시온을 건설하라고 권고 받고 있습니다.

시온은 구체적인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 에녹의 도시(모세서 7:18~21)
- 고대 도시 예루살렘(열왕기상 8:1)
- 미주리 주 잭슨 군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 (교리와 성약 57:1~3)

지도자를 위한 제언

여러 해 동안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앤 엘돈 태너 회장님(1898~1982)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아홉 가지 제언을 주셨습니다.

1. 온전한 지도력의 귀감으로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다.
2. 교사와 종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3. 정확한 원리들을 찾도록 경전을 연구한다.
4. 기도로 인도를 간구하고, 듣고 응답한다.
5. 개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6. 각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7. 적절하게 감사를 표현한다.
8. 가르치는 것과 일관된 개인적인 모범을 보인다.
9.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교회 회장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른다.

“Leading As the Savior Led (구주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도함)”, New Era, 1977년 6월호, 7쪽.



“용서는, 사랑과 관용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용서”, 리야호나, 2005년 11월호, 84쪽.

질문을 하는 용기

라이 창 후이링

19 94년 여름 나는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인 미아오리로 돌아왔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꽃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면 내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진다.

어느 날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남자가 꽃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그분은 들어오시라는 나의 말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왠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길에서 그분을 여러 번 마주쳤고, 우리는 목례와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식당에 앉아 빙수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휠체어를 탄 그분이었다.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분은 용감하게도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은

후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그분은 전화를 걸어 교회에서 있는 저녁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친구의 가보라는 말에 나는 주저하면서도 그 곳에 갔다. 식사는 맛있었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회 회원들은 내가 환영 받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었다. 저녁시간이 끝나기 전 또 다른 교회 회원이 나의 타이페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고 그곳 선교사들에게 나에게 대해 알려 주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의 영원한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1994년 가을에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고, 1997년에는 선교 사업을 나갔다. 집에 돌아온 2년 뒤에는 귀환 선교사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교회 회원이 질문을 할 용기를 냈으므로 가능했다. 그 당시 그분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 느 날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남자가 꽃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그분은 왠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복잡했다. 간간히 확성기를 통해 도착하는 기차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곧 내가 기다리던 기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기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어떤 분명한 느낌이 왔다. 기차를 타지 말고 버스로 집에 가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열차표는 이미 구입했고, 버스표를 또 살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너무 강해 무시해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을 느꼈었다. 기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다시 그 말이 들릴까 싶어서 가만히 서서 기다렸는데, 정말 다시 한번 “안 돼!”라는 소리가 들렸다.

기차역을 떠나자마자 나는 내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나는 코벤트리로 가는 버스를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 기차를 탔더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라는 생각만 들었다. 결국 버스를 타고 초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텔레비전 뉴스를 듣자 충격적인 광경이 보였다. 내가 타려던 기차가 뉴니튼 외곽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몇몇은 사망했다.

나는 항상 기관차 바로 뒷 객차에

기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나를 구주의 복음으로 인도했다. 그분은 내가 몰몬경에서 찾은 구절을 상기시켜 준다. “나는 너희 영혼의 영원한 복리 이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니파이후서 2:30) ■

경고의 음성

산드라 게이츠

모 이 아팠던 나는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잉글랜드 중부의 리체스터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많은 집들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날은 1976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나는 행복했고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약 1.6킬로미터를 걸어 기차역으로 갔다.

기차역 승강장은 여러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타곤 했는데, 그 부분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내가 그 작고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았다. 또 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내가 하지 못하게 될 죽은 조상들을 위한 계보 사업과 성전 의식도 떠올랐다.

나는 성신이 주는 경고와 확신의 음성에 감사드린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축복이 필요했다

이베스 라울리나

20 05년 2월 나는 엘라베마의 추운 숲에서 육군 사관학교의 마지막 훈련 과정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밤낮으로 며칠 동안이나 소규모 보병 훈련을 하며 지냈다. 어느 날 저녁,

나와 동료들이 밤을 나기 위해 캠프를 치는 동안 차가운 비가 사정없이 쏟아졌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렸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젖어 있었다. 온 몸이 떨렸다. 설상가상으로 전에 몇 번 발병했던 폐렴까지 재발될까봐 걱정이었다.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의 모범이 떠올랐다. 나는 훈련을 끝마치기로 결심했다. 장교가 되려는 나의 목표를 포기하기에는 나와 내 가족이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간구했다.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고 다음날은 상태가 더 안 좋았다. 기력이 바닥 난 상태였다. 추위 속에서 장시간

손 과 발은 동상에 걸렸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웠다. 설상가상으로 폐렴까지 재발될까봐 걱정이었다.

훈련하는 것은 고통과 기침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교관 중 한 사람이 내 상태를 알아채고 야전 텐트에 몇 시간 들어가 있으라고 명령했다.

진흙 바닥에 맨발로 선 채 젖은 옷을 걸면서,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텐트의 한쪽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장교가 들어왔다. 나는 그 중 한 명인 스코트 런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찌 된 일인지 우리의 대화는 외국 여행으로 이어졌다. 스코트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2년을 살았다고 했다. 스코트가 귀환 선교사라는 영감이 즉시 왔다. 내가 물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음, 교회일로 갔었어.” 그가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네.” 그가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덧붙였다.

악수를 하며 나는 스코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고 나는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축복 기도를 하자, 나는 즉시 회복되었다! 다시 기력을 되찾았고, 기침도 멈췄다. 아픈 증상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훈련을 끝마쳤고 한달 후 임관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들 각자를 마음에 두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의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스코트 런델은 2006년 11월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 중 사망했다. 나는 그를 잘 몰랐지만 그의 죽음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를 내게로 보내 주셨다. 나는 그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한 축복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

두 사람의 간증의 힘

케이티 트루먼

어느 날 집 근처의 데저렛 인터스트리(교회의 공식 중고품 매장)에서 책을 고르던 나는 부활절 아침에 친구에게 물몬경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쓰던 책을 모아 놓은 책꽂이에서 깔끔해 보이는 물몬경 한 권을 골라 카트에 넣고 상점 안을 계속 돌아다녔다. 그러다 곧 상태가 더 좋은 새것 같은 물몬경을 발견했으므로 나는 먼저 고른 물몬경은 다시 꽃아 놓고 그 책을

저렴한 데서 책을

고르던 중 부활절 아침에 친구에게 물몬경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계산대로 가져갔다.

집에 도착한 나는 그 물몬경을 부활절이 될 때까지 내 책상 위에 두었다. 부활절 아침, 책 안에 내 간증을 쓰기 위해 물몬경을 펼쳤다.

그때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가족이 25년 전에 찍은 사진이 그 안에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아버지가 쓰신 간증이 적혀 있었다.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분이 옆에 계신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가 청소년일 때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1899~1994)께서 가족들이 물몬경 안에 그들의 사진과 간증을 담아 교회 본부로 보내도록 하셨던 일이 기억났다. 그 물몬경들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었다.¹ 그 물몬경을 찾았을 때 나는 당시 우리 가족이 살았던 곳에서 수 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간증 아래 나의 간증을 덧붙인 후 그 물몬경을 친구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과거의 물몬경 나누기 활동이 나와 내 친구에게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 감사드렸다. 내 친구는 내 아버지의 간증과 그 특별한 “우연”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곧이어 물몬경에 대한 스스로의 간증을 얻었으며 침례를 받았다.

벤슨 회장님의 영감이 가져온 감격과 25년의 세월을 넘어 내 손에 다시 돌아온 그 물몬경이 가져온 축복으로 나의 간증은 강화되었다. ■

주

1. “은 지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4쪽.

리아호나를 나눔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 성전 사업, 교회 부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읽습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 저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 또한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고든 비 항클리 회장님의 말씀은 늘 저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새로운 회원 및 저 활동 회원들과 리아호나를 나누었습니다. 리아호나는 그들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조세핀 에이 만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받지 않는 자매들에게 방문 교육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리아호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계 리아호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푸에르토 리코, 이사벨 메디나 멘데즈

회원 및 비회원을 위한 기사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은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항목은 제일회장단 메시지로, 저는 항상 그 메시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권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늘 정보의 원천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나 에이카나손

리아호나를 다시 읽음

리아호나는 축복이며 동반자입니다. 저는 2003년 9월호의 “불공평의 벽을 넘어서”를 다시 읽고는 다시 한번 교회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고 귀환한 후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참으로 색다르고 놀라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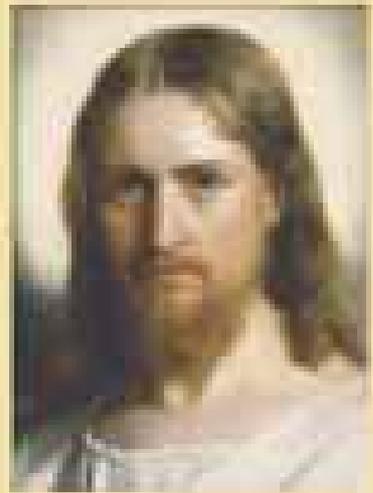
세계 너무 많은 일들이 요구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다시 읽었을 때 그것은 제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은 어찌면 항상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필리핀, 조지어 파홀라야

연차 대회를 시청함

연차 대회를 인공위성으로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와 총관리 역원에 대해 큰 감사를 느낍니다.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인공위성으로 대회를 본 이후 저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으며 다음 연차 대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도 연차 대회를 볼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특별히 큰 위안이 됩니다.

코스타리카, 펠리페 유어비나



스탄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세부 그려, 칼 하인리히 볼로호

다음 호 리아호나에는

사 람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종종 묻는 말은 “물론은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이다. 다음 호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할 것이며 모든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다음 호의 몇몇 기사들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고든 비 항클리 회장이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포함하여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구주에 대해 간증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동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 칠십인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지를 가르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2008년 3월호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제언은 이번 호의 뉴스란에 있는 관련 기사를 참조한다.

친구들



너의 의무 다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51년 전에, 저는 당시 옥든 남 스테이크 회장이셨던 윌리엄 제이 크리칠로우 이세 형제님이 신임과 명예,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루퍼트라는 소년이 길가에 서서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급히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친구는 잠시 멈추고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 “임금님께서 진귀한 에메랄드를 잃어버리셨어! ... 임금님께서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하셔서 모두들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도 빨리 가자.”

루퍼트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할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에메랄드를 꼭 찾고 싶거든.”

루퍼트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럼 양은 어떻게 하고?”라고 물으셨습니다. “양들이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게 갇혀 있어서 벌써 답답해 한단다. 어서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면 물가로 데려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루퍼트는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갔으며, 점심 때는 양을 몰고 숲속의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냇가의 커다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금님의 에메랄드를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고개를 돌려 시냇물의 모래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던 루퍼트는 순간 물 속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지? 아냐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 “임금님의 에메랄드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루퍼트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가 자신의 엄청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구나, 애야. 하지만 네가 양을 치는 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것을 찾지 못했을 거야.” 루퍼트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너의 의무 다하라. 그것이 최선이니,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지어다!”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격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해지고,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수행하실 일에 대한 부름이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다.”(모세서 4:2)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주

1. Conference Report, 1955년 10월, 86쪽; 현대의 표현에 맞게 편집함.
2.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Longfellow* [롱펠로우의 시 전집] (1893년), 258쪽, “The Legend Beautiful[아름다운 전설]”

생각해 볼 점

1. 여러분은 왜 할머니가 루퍼트에게 집에 머물며 양들을 돌보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 만약 루퍼트가 에메랄드를 찾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3.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의무들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을 받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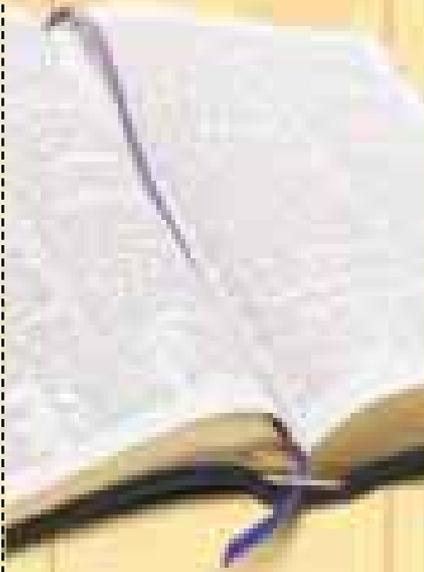


경전의 힘

2월



경전의 힘



경전 권능 나를 지키사
죄를 짓지 않는 힘 얻겠네
경전 말씀 매일 읽으면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겠네.

주: 잡지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으면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kr에서 인쇄할 수 있다. 영문으로 인쇄하려면 www.lds.org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얻는 힘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니파이후서 4:15)

린다 크리스텐슨



몰몬경의 선지자 니파이는 경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고, 경전에 대해 생각하고, 경전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파이는 경전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몰몬경의 또 다른 선지자인 엘마는 조람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마를 슬프게 했습니다. 엘마는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조람인들이 회개하고 계명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와 엘마처럼 여러분도 경전을 읽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 권능 나를 지키사
죄를 짓지 않는 힘 얻겠네
경전 말씀 매일 읽으면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겠네
(“경전의 힘”, 2006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및 어린이 성찬식 발표, 10~11쪽)

여러분은 경전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계명이 무엇인지, 또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

친4쪽을 떼어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책갈피의 검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린다. 점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 책갈피의 양 뒷면을 풀로 붙인다. 경전의 읽은 곳을 표시하기 위해 책갈피를 사용한다. 경전을 읽은 날에는 해당 날짜에 표시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일지를 보여 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에게 묻는다. 일지란 생각이나 느낌 및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의 기록을 말한다. 복음 그림 패킷 122(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를 보여 주고 열두 아들들의 이름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준다.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16절을 읽을 때 어린이들에게 아들들 중 두 명의 이름을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유다와 요셉과 그들의 후손들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한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는다. 복음 그림 패킷 326(성경과 몰몬경: 두 증거)을 보여 주고, 성경이 유다의 막대기이며 몰몬경이 요셉의 막대기라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이 에스겔 37장 17절을 암기하도록 돕는다. 어린이들에게 경전과 더욱 친숙해지는 방법들(경전에 표시하기, 경전 암기,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 시간 갖기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서로 “하나가 되는” 성경과 몰몬경을 가질 수 있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니파이후서 3:12 참조)

2. 나의 복음 표준 및 교리와 성약의 성구를 사용하는 짝 맞추기 활동을 준비한다.(예: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의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와 교리와 성약 88:123;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겠습니다.”와 교리와 성약 4:6) 칠판에 교리와 성약을 적고 두 단어의 의미를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소개 부분을 펼치고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는다. 교리와 성약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은 장이 아닌 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을 위해 칠판에 참조 성구를 적고 나의 복음 표준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성구를 찾아 표준 하나와 맞추도록 지명한다.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성구와 표준을 읽고 그 표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나누게 한다. ●

가족 역사의 기적

“이제 아담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이 예언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가 기록되었으니”(모세서 6:8)

매튜 맹검
실화에 근거함

나의 아버지는 가족 역사 사업을 많이 해오셨다. 나는 개척자였던 나의 조상들,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했던 조상들, 유럽의 왕과 기사였던 조상들에 대해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토요일에 나와 함께 가족 역사 도서관에 가겠니?” 라고 물으셨다.

“그럼요!” 나는 우리 족보에 있는 왕족의 이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여 도서관으로 걸어가면서 여름 아침의 햇살을 만끽했다. 도서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더욱 흥분이 되었다. 그 큰 건물 안에는 나의 가족, 즉 개척자, 군인, 기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이름들과 이야기들이 있었다.

안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의자 두 개를 컴퓨터 앞으로 가져오셨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왕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 주시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하셨다.

“음.”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오늘 그것을 찾기는 어렵겠는데?”

나는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나머지 오전 시간을 우리 개척자 조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을 살펴보며 보냈다. 그것도 재미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다른 조상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걱정 말거라, 다음 주말에 다시 오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그 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곧 아버지와 나는 다시 가족 역사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어! 찾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럽 전역의 왕과 왕비들의 이름을 화면에서 쪽 살펴보셨다. 그곳에는 수많은 이름과 날짜들이 있었다. 가족 역사 소프트웨어에 그것들을 입력하려면 여러 날은 족히 걸릴 것 같았다. 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옆 컴퓨터에서 작업 중이던 한 여인이 우리가 하던 일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저도 그쪽 계보와 관련 있어요.”라고 말했다. “전 그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여기서 작업하고 있답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디스크에 자신의 정보를 모두 복사해서 아버지께 건네주었다.

자동차로 돌아오면서 나는 곰곰히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조상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심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는 웃으셨다. “맞아. 우리가 지난 주에 찾으려 했던 조상들을 발견했다면 오늘 우리의 새 친구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또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조상들을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 아침에 거의 천 년에 해당하는 가족 역사를 발견하도록 도와 주셨음을 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조상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들의 이름을 찾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성전 의식을 확실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언젠가 나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



“저는 모든
가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유산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 ...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상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1쪽.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리하이와 니파이가 하나님께 순종함

발 채드워 베이글리

만드는 방법: 아래와 같이 인물 그림들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잘라낸 다음, 막대 인형이나 용판 인형 또는 진열 상자로 만든다.(각 인형의 아래에 손잡이를 붙인다.) 이 인형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사용한다.(니파이전서 1:4~6, 18~20; 2:1~7 참조) 또 인형을 사용하여 니파이가 늦쇠판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들려줄 수 있다.(니파이전서 3장; 4:1~3, 20, 24, 26 참조)

주: 잡지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한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로 된 자료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삽화: 발 채드워 베이글리



진열 상자

막대 인형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의 다리 수술



조셉 스미스는 일곱 살 때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열이 나고 어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다리가 못 견디게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다리가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 다리가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조셉의 어머니 루시와 형 하이럼은 조셉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이곳 저곳으로 그를 안아서 옮겨 주었고 침대 옆에 함께 있어 주었으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픈 다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조셉을 돕기 위해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는 조셉의 다리를 절개했습니다. 조셉은 잠시 나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윽고 더 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의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셉의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다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해요.

한 번 더 노력해 보기 전에는 그의 다리를 절단하실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수술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셉의 다리를 침대에 묶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에게 독한 술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를 묶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포도주를 좀 마시겠니?

뭐라도 좀 마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게다.

아니에요.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어요.



조셉은 아버지에게 침대에 앉아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어머니에게는 방에서 나가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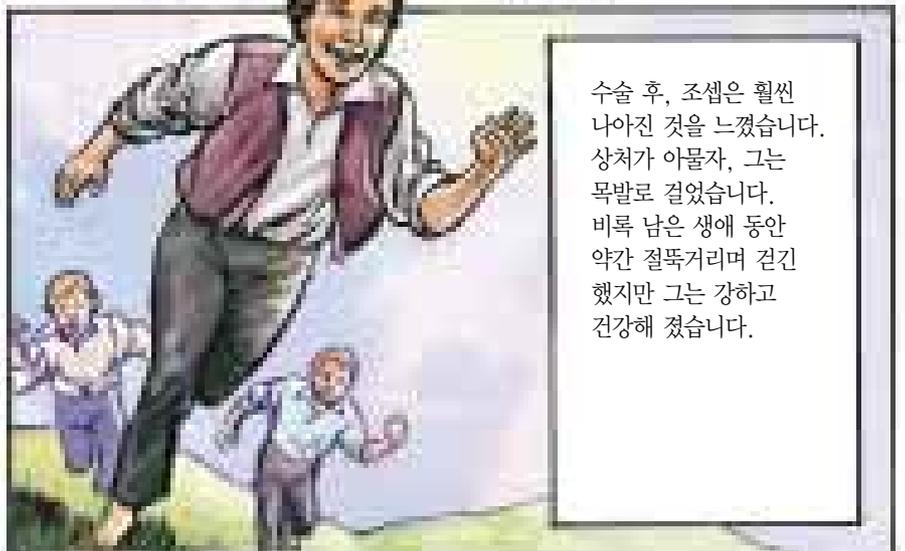
주님께서 저를 도와 주실 것이고 저는 수술을 견뎌낼 거예요.



의사들은 조셉의 다리에서 큰 뼈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수술은 조셉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자 어머니가 달려 왔습니다.

아, 어머니, 가세요, 나가 주세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걸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다시 한 번 용감하게 이겨낼게요.



수술 후, 조셉은 훨씬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그는 목발로 걸었습니다. 비록 남은 생애 동안 약간 절뚝거리며 걸긴 했지만 그는 강하고 건강해 졌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엘마서 37:37)

니파이 처럼

세련리 비 하디
실화에 근거함

창 밖을 응시하다가 흥측한 거미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것은 내가 이 집에서 그리워하지 않을 것 중 하나겠지. 거미들, 우리 새 집에는 거미들이 없을거야. 어쩌면 나는 이 허름한 곳을 그리워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껍도 그렇겠다.” 나는 누워서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 올리며 혼자 투덜거렸다. 이 집도, 이 동네도, 우리 반도, 제일 친한 친구들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가려면 이 집안이 온통 거미로 찰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타냐야” 방문 밖에서 캐리 고모가 불렀다. 고모는 나와 동생들을 돌봐 주고 계셨다.

나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왜요?”

“들어가서 잘 자라고 인사해도 될까?”라고 고모가 물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캐리 고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모였다. 고모는 내가 눈에도 그녀의 화장품을 발라보게 해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에게 핫초콜을 만들어 주었으며, 고모가 나처럼 열한 살이었을 때 일기에 적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고모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 앉았다. “타냐, 오늘 저녁엔 영 말이 없네. 이사 가는 게 걱정되니?”

나는 볼멘소리로 “제 친구들은 다 이곳에 살아요. 학교 갈 땐 누구랑 같이 걸어가죠? 점심시간엔 누구랑 같이 앉고요? 이곳에서 청녀가 되고 내년 여름에는 캠프에 갈 생각이었는데, 이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해요.”라며 투덜거렸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목소리가 잠겼다. 캐리 고모는 내게 화장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캐리 고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캐리 고모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거 아니, 타냐, 이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니파이가 떠오른다.”

“왜요?” 내가 물었다.

“니파이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말했을 때, 아마 니파이는 나이가 너보다 그리 많지 않았을 거야.”

내 머릿속의 니파이는 항상 어른이었다. “니파이가 내 또래였을 때도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캐리 고모는 침대 옆 탁자에서 내 물문경을 집어 들더니 니파이전서를 펴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리하이 이야기 기억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리하이의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고 그들의 고향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다.

캐리 고모는 무릎 위에 펼쳐 둔 경전을 읽었다. “니파이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하이]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났느니라.’”

“니파이가 제 또래였다고 하셨나요?” 내가 끼어들었다.

캐리 고모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데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16절에서 자신이 ‘몹시 어렸[다]고 했어. 그가 너보다 나이가 많았다 해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야. 광야에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겠니? 친구할 사람 자체가 없었을 걸!”

나는 싱긋 웃었다. 적어도 우리가 이사하는 곳에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니파이는 어떻게 했죠?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레이맨과 레우엘은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죠? 왜 우리는 재산과 집과 친구들을 떠나야 하나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니파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캐리 고모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니파이는 16절에 그 답의 열쇠를 남겼지.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모는 내가 이해했는지 살피기 위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니파이는 기도를 했군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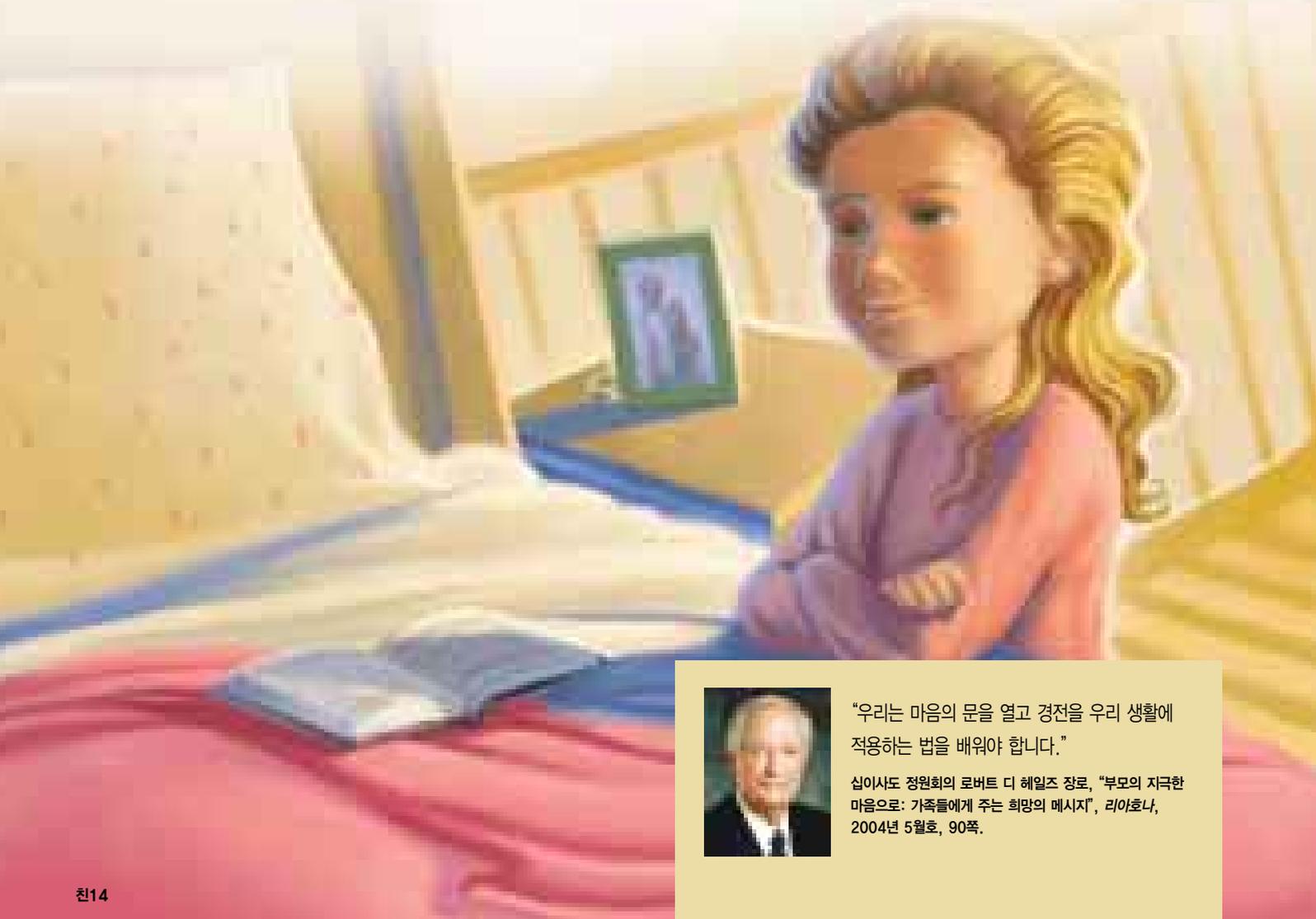
“맞아.” 캐리 고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내 손을 꼬옥 쥐었다. “타냐, 넌 선택을 할 수 있어. 이사 가는 것에 대해 레이먼이나 레뮤엘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 네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도 있지. 네가 만약

그분께 부탁드린다면, 그분은 니파이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네게 힘을 주실 거야.”

나는 캐리 고모를 보며 따스함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일어나 앉아 고모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캐리 고모.” 하고 속삭였다.

“사랑한다, 타냐. 잘 자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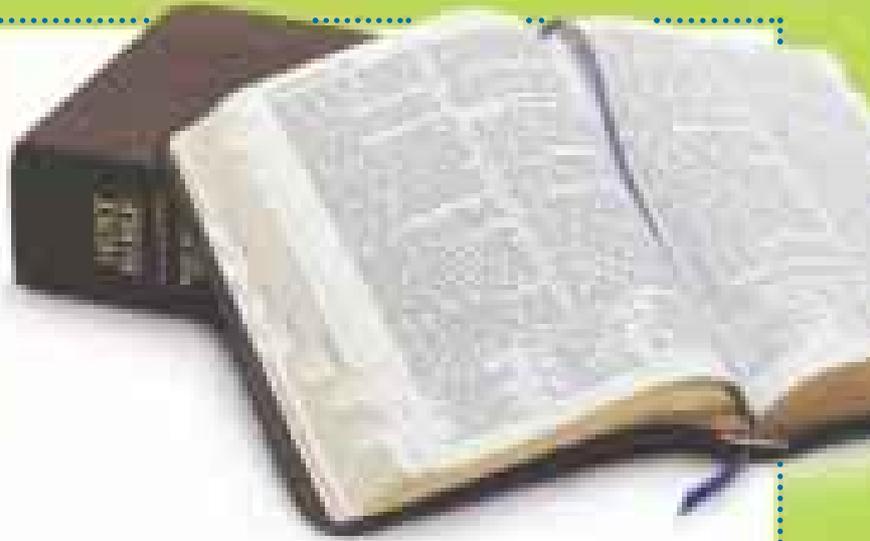
고모는 내 방 불을 끈 후, 방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기 위해 침대에서 살며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신다면 나는 결국 이 이사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경전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부모의 지극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0쪽.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경전 속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우리는 경전을 펼 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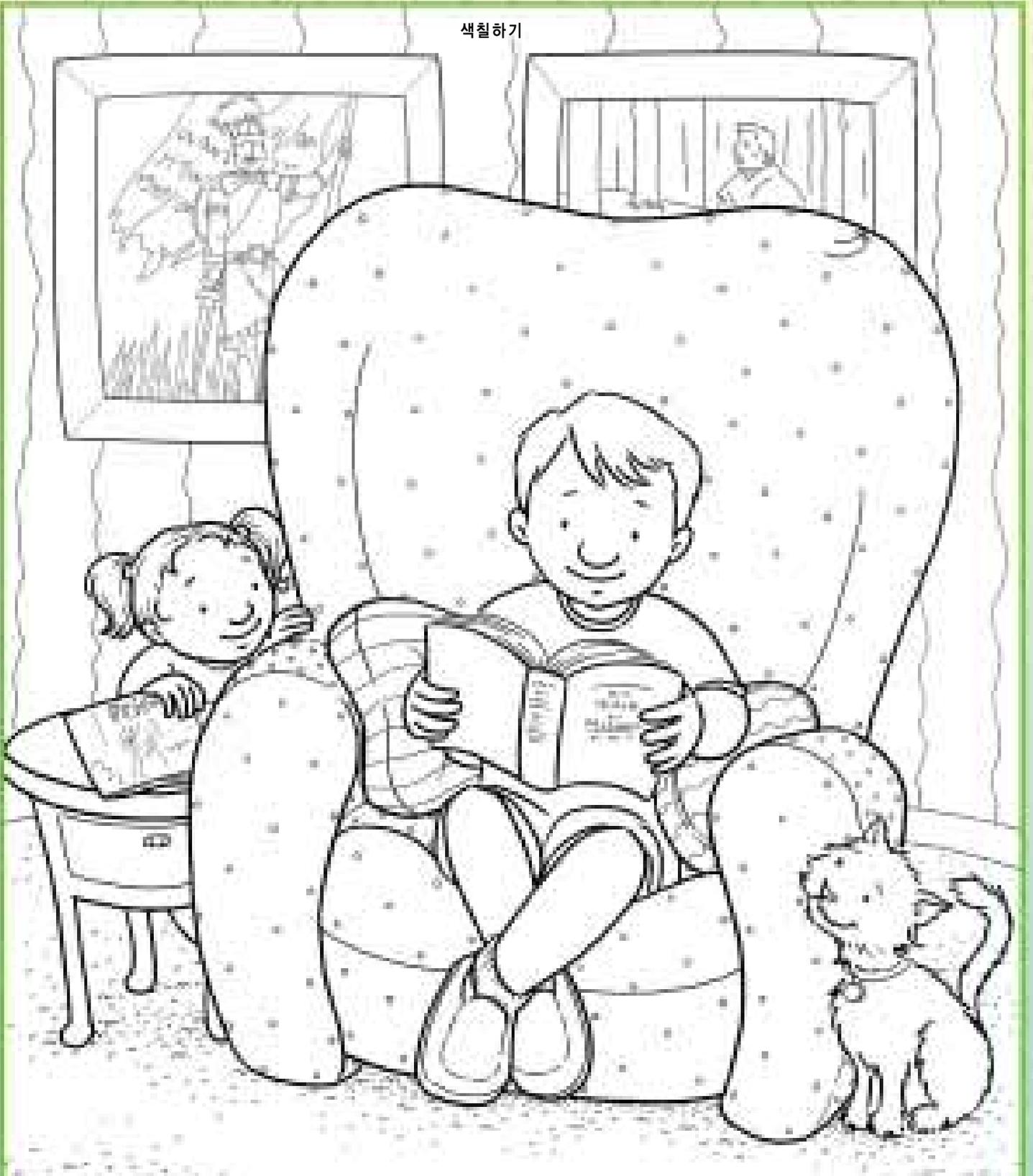
경전의 말씀을 참으로 기쁘게 취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경전 공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규칙적인 경전 공부가 익숙해지고 나면, 경전을 읽지 못할 때 경전이 그리워집니다.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8~12쪽에서

소녀의 사진: 라니 레이스먼, 모델이 포즈를 취함; 경전과 빵 사진: 엘리 에버, 리타 에타; 포스트카를어 몰몬경 사진: 나딘 윌슨



경전은 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판에는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낯쇠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니파이후서 4:15)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시는 구주에 관한 내용을 다룬 2008년 3월호

2008년 3월호 *리아호나*와 *엔사인*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모든 기사는 활동 회원 및 저활동 회원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호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교회 잡지 편집인인 제이 이 젠슨 장로는 “3월호 교회 잡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분의 속죄의 축복을 매우 풍족히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3월호는 다음 내용들을 다룬다.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저술한 구주에 대한 교회 가르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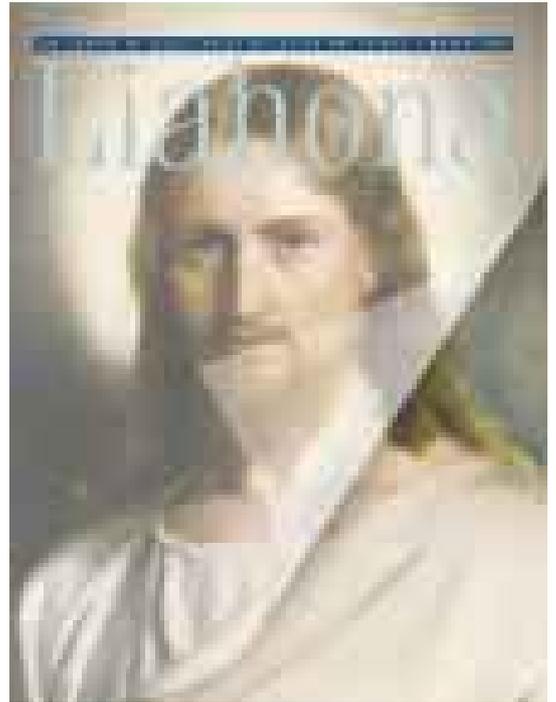
-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왜 필요한지, 그분의 속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구주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 쓴 기사들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묘사한 미술 작품 모음

- 주님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알게 해 준 경험들과 간증

3월호는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 와드 및 지부 선교사,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이웃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일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단위 조직은 다수의 여유분을 받게 될 것이



다. 3월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회원들은 미리 잡지를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의 일원과 함께 의논할 수 있다. 또한 *리아호나*는 배부 센터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

옥스 장로가 인도, 파키스탄, 태국의 성도들을 만나다

선 디 스탈, Church News 전속 기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2007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도, 파키스탄, 태국에 있는 회원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옥스 장로의 부인과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이자 칠십인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내외도 함께했다.

이들은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열린 지방부



뒤편 오른쪽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 뒤편 중앙에는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와 그의 아내 다이앤이, 뒤편 왼쪽에 칼 엘 다지 회장과 그의 아내 군다 레가 치앙마이 지방부 회원들과 함께 서 있다.

대회에서 세 개의 지부로부터 모인 347 명의 회원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이곳 북부 도시에 있는 641명의 회원 가운데 54퍼센트에 달하는 숫자이다.

7,000명에 이르는 회원들 대다수는 힌두 및 이슬람 국가에 거주한다. 대부분은 인도 방갈로르 선교 본부가 있는 방갈로르를 포함한 남쪽의 두 개 지방부에서 생활한다. 델리의 쌍둥이 도시로서 탄생한 뉴델리에는 회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좁은 거리와 그곳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소들의 모습은 그곳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옥스 장로는 인도를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에는 국가를 통틀어 겨우 몇 백 명의 회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의 회원들이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열

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양적으로 볼 때 회원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우 충실합니다. 1989년, 제가 뉴델리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한 개의 지부만이 있었으며, 그 지부는 단 한 명의 귀환 선교사만을 보유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 개의 지부가 있으며 34세의 지부 회장 프라빈 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부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다른 여러 회원들은 [중국] 홍콩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의 교회 회원들도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옥스 장로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344명

의 인도 회원들 중에 93퍼센트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은 자신의 성전 인봉을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옥스 장로와 그의 부인 크리스틴, 그리고 홀스트롬 장로와 그의 부인 다이앤은 세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존 씨 가족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네 명의 아들로 유명하다. 가족들은 2년 전에 뉴델리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함께 모임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것이 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스 장로는 계속해서 “인도 사람들은 아름답고 활기칩니다. 그들은 잘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국가들 중 어느 국가보다도 위대한 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옥스 장로와 홀스트롬 장로 내외는 현지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비행했다. 그들은 4개월 전에 다섯 명의 가족들이 모두 침례를 받은 한 가정을 만나는 등 여러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들은 또한 주중에 노변의 모임을 마련했고, 그 모임에는 약 475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태생의 선교사들만이 이슬람 국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약 1억 7천만 명 가운데 대략 3백만 명만이 기독교인이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한다.

옥스 장로와 홀스트롬 장로 내외는 지

방부 대회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태국으로 비행했다. 태국에 있는 15,000명 이상의 회원들 대부분은 남쪽에 살고 있다. 북부 태국 치앙마이 지방부의 회원수는 약 875명이다.

태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있는 국가이다.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국민들의 약 95퍼센트가 불교신자이다.

인도, 파키스탄, 북부 태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옥스 장로와 홀스트롬 장로는 구구에 대한 간증, 가족 강화, 신권 열쇠, 성전 의식, 미래의 지도자로서 청소

년들을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일의 중요성과 같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강조했다.

여행하는 동안 옥스 자매는 초등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도록 1,000장 이상의 “간증 장갑”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갑은 공과를 위한 시각 자료이다. 각 손가락에는 간증의 요소들을 묘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첨부 자료는 영어, 힌디어, 태국어, 우르두어로 제공되었다. ■

2007년 9월 22일자 Church News 에서 발췌

벨라드 장로가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다

언론 매체가 가장 빈번히 묻는 몇몇 질문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러셀 벨라드 장로가 언급한 내용을 담은 일련의 비디오 영상물이 LDS.org에 게재되었다.

벨라드 장로는 후기 성도는 기독교인인가, 교회는 정치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가 등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영어로만 제작된 이 영상물은 미국에서 증대되고 있는 교회의 인지도 때문에 대중, 특히 기자들이 교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일련의 국민 여론 조사는 인구의 상당수가 교회에 대해 아주 조금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인 ‘몰몬은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답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미래에 대한 포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

인도 뉴델리의 새로운 선교부

선 디 스탈, Church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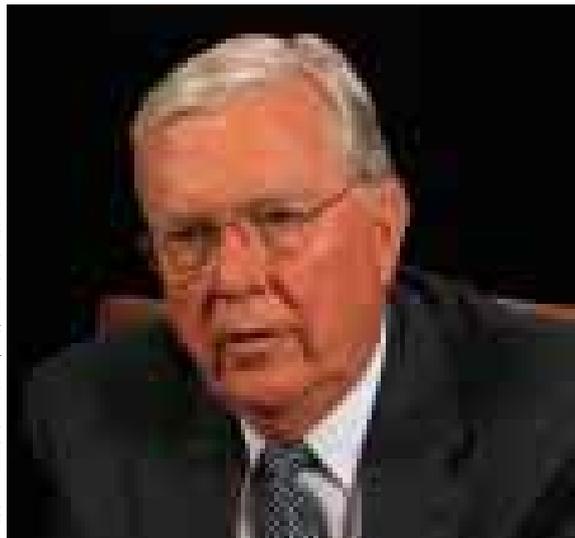
인도 뉴델리 선교부에 대한 제일회 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발표로 이 활기찬 아시아 국가에 두 번째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선교부는 348개가 되었다.

2007년 11월 1일에 개설된 이 새로운 선교부는 방갈로르 선교부와 싱가포르 선교부, 이 두 선교부를 분할하여 조직하였다.

뉴델리 선교부는 인도 북부 일부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지역을 관할한다. 새로운 선교부 회장은 부인 플로렌스와 함께 뉴델리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던 개리 알 리스가 부름 받았다. 국가의 나머지 지역은 계속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에 속할 것이고, 스리랑카가 선교부 지역으로 추가되었다. 싱가포르 선교부는 싱가포르, 동말레이시아, 서 말레이시아를 관할할 것이다.

이 두 선교부의 선교 활동은 활기차다. 이 두 번째 선교부는 방대한 여행 거리를 줄임으로써 선교부 회장이 선교사들과 함께 일할 시간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

2007년 10월 6일자 Church News 에서 발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는 기꺼운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원고 없이 교회 공보부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에 있는 몇몇 신문사의 종교 기자들과 함께한 온라인 기자 회견 중에 발표되었다.

교회 대변인들은 선임 교회 지도자의 인터뷰를 게재하는 것은 후기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한 몇 가지 단계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밖의 주제에 관한 다른 사도들의 인터뷰들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드 장로는 현재 교회 공보 위원회 위원장이다.

벨라드 장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의 신

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일요일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까? 왜 몇몇 사람들은 당신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떤 점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비슷합니까? 당신은 어떤 점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릅니까?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습니까?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필요합니까? 몰몬경의 진실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는 정치 후보자들을 지지합니까?

비디오 영상물을 보려면 LDS.org를 방문하여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Newsroom**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Elder Ballard interview” 를 입력한다. ■

는데, 그것은 가족의 전통인 듯하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경찰관으로 일해왔다.

과테크 형제는 매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찰 업무와는 좀처럼 무관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것은 기도이다. 작전이 시작되면 그는 부하 직원 중 어느 누구도 부상당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는 심지어 자신들이 체포하기로 한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지금까지는 그가 기도한 대로 성취되어 왔다.

때로는 경찰 일을 하면서 영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번은 몇 가지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과테크 형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귀가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그는 지금 당장 감옥으로 가면 그 용의자가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는 돌아갔고 자백을 받아냈다.

경전에는 “경찰 수사에 가장 모범이 되는 형태”를 보여 주는 구절이 있다고 과테크 형제는 말한다. 바로 힐라맨서 9장 26~36절이다. 이것은 선지자 니파이가 의혹에 찬 무리에게 대판사를 살해한 자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수사자가 반드시 올바른 형태의 질문을 하고, 용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현장의 증거물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지막으로 과테크 형제는 니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업무는 거의 하루 24시간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수억 달러의 현금과 자산이 연루되어 있는,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마약 밀매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함

돈 설, 교회 잡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약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줄리오 과테크는 그것을 알 만한 위치에 있으며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루과이의 국가 마약 단속국 국장이다.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둔 그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 스테이크, 몬테비데오 18와드 감독단 제1보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다. 마약 문제에 대해 정통한 그는 부모들에게 쉽게 외닿는 도움 제언 목록을 제시한다.

- 좋은 모범을 보인다.
-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진정한 대화를 한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 자녀들에게 풍부하고 진심어린 사랑을 표현한다.

• 자녀들의 착한 행동에 자주 고마움을 표현한다.

•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랑으로 한다.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전했다. “절대로 마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움을 줄지 모르나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감추고 있습니다.”

과테크 형제의 공식 직함은 마약 밀매 단속반 국장[Director General de Represión del Tráfico Ilicito de Drogas]이다. 그는 국립경찰 경감 직급에 있다. 그는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일해왔



우루과이 마약 단속국 국장이자 교회 회원인 줄리오 과테크는 자녀들의 마약 문제 예방에 대한 제언을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추적 작전을 감독한다. 업무에 대한 부담 속에서 과테크 형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저의 최고 우선순위는 항상 가족입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곱 자녀의 아버지이며 여가 시간에 국제 마약 밀매와 싸운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일에 대한 부담은 그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에는 오로지 주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거둔 성공에 대한 공로를 우수한 직원들에게 돌린다.

그는 모든 부모들에게 우선순위를 고

려하라고 촉구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데 전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귀가할 때면 일곱 살 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족석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자녀들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2살까지 다양하다.

매일 가까운 거리에서 사탄과 맞서며 그가 강한 간증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일까? “아니요, 저는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하루하루, 그는 복음의 기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의 필요성을 분명히 깨닫는다. 그는 정직을 예로 든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은 감추려고 해도 항상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곤경에 빠지지도 않는다. 과테크 형제는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충고한다.

과테크 형제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마약은 마약을 손대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기타 중독적인 소재나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어떤 신체적 혹은 영적 손실을 겪지 않고 마약을 생산, 운반, 판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심지어 가장 성공적인 마약 밀매상이라도 “황금으로 된 동굴에 갇혀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의혹을 안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살아가야 한다.

이 생과 다음 생에서 평화를 누릴 유일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홍수, 지진 피해자들에게 변함없이 제공되는 교회의 원조

재난이 지나가고 지진이 멎고 수해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페루,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회원과 친구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 회원 및 자선 단체와 재단의 관대한 기부를 통해 교회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위생용품 세트, 식량, 방수천, 담요 및 기타 생필품을 제공하며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2007년 9월 12일 저녁, 수마트라를 강타한 진도 7.9의 지진 희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진으로 남부 수마트라 벵쿨루 지역의 30,000여 가구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후, 모든 선교사는 안전하며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25명의 회원 역시

무사하다고 보고되었다. 가장 피해가 큰 마을은 라이제와, 알가마크무르, 무코무코였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지휘 아래 지진 발생 직후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원 봉사자 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식용유와 쌀, 기타 식료품, 석유 랜턴, 방수천 등을 배포함으로써 빠르게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지진 발생 이틀 후, 벵쿨리와 라이제, 알가마크무르에 도착한 후기 성도 자선회 직원들이 발견한 모습은 대규모의 피해 상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상된 가옥 밖에서 햇빛과 폭풍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수천 아래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몇몇 거주민들은 계속되는 지진 활동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들의 가옥에는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었다.

지진 발생 후 사흘째 되던 날, 후기 성도 자선회는 500여 가구를 원조할 식량을 가지고 라이제와 알가마크무르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직원들은 몇 개의 다른 마을에도 식량을 전달했다.

또한 후기 성도 자선회는 2,9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이슬람 단체인 무함마디야에 한 트럭 분량의 쌀과 기타 식량을 제공했고, 벵쿨루시 지역에 원조를 제공하는 독립 기독교 협회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

알가마크무르에 있는 지역 병원이 피해를 입어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을 일시적으로 주차장과 보도에 설치된 대형 군용 막사로 대피시켜야 했다. 응급 환자들은 타격을 입은 병원 건물 밖 포장된 보도에 수용되고 수술이 시행되었다.

2007년 10월 6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아프리카

17개의 아프리카 국가 전역을 휩쓴 강한 홍수가 수십만 명을 내몰았다. 9월의 심한 폭우는 우간다, 에디오피아, 수단에 가장 심하게 쏟아졌다. 이 홍수로 25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가구가 파괴되었다.

교회는 차량으로 30여 시간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쌀, 설탕, 콩, 기장, 식용유, 담요, 수건, 비누 등의 구호 물자를 트럭에 실어 가나에 보냈다. 교회는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한 기관 중 하나였다.

가나 북동부 지역 차관보인 아그네스 치가바티아 이상갈리사가 인도주의 선교사 브루스 크누슨 장로와 아디스 크누슨 자매에게 도움을 청해 왔다.

마을에 있는 많은 진흙집들이 홍수에



사진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부

원조를 제공하기 전에, 후기 성도 자선회의 랄프 워커 장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지진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유실되었고, 30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학교나 마을회관, 교회, 혹은 정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으며 장작과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여러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도 파괴되어 많은 거주지들에 오직 카누를 이용해 서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고위 관리들은 전 지역에 걸쳐 수인성 질병이 발생되지 않을까를 염려했다.

“파괴 규모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라고 가나 적십자 사업 본부장인 베노니타 비스마르크가 말했다.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동부 지역에서만 약 12,220 헥타르의 농장이 홍수에 쓸려갔다.

“사람들의 생계 수단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이 지역에는 기근이 임박해 있습니다.”라고 내무부 홍보 책임자인 나나 아크라시 살롱이 말했다.

가나 아크라 아덴타 스테이크, 마디나 2워드의 감독인 클라렌스 코피 형제는 지역 목회자 대리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2007년 10월 6일자 Church News 에서 발췌

페루

2007년 8월에 페루 피스코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진도 8.0의 지진이 일어난 지 5주가 지났으며, 교회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피해 지역에 구호 인력과 물품을 보냈다.

피스코 시의 70퍼센트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서는 며칠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다. 파괴된 교회 집회소는 없었으나 여러 채가 손상되었다. 이 지진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지진 발생 후 2주가 채 안 되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황폐화된 국가에 방문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페루인들에게 심어 주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페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초기 구호 노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구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와 그로스너 식품, 디에이치엘 인터내셔널 및 아스타 항공 화물이 공조하는 가운데, 18,000킬로그램의 위생용품 세트와 담요, 학용품 세트, 초고온 멸균 우유(특별 가공 포장되어 개봉 전까지 냉장이 불필요한 우유) 등이 피스코에 전달되었다.

남미 서 지역 회장단의 지휘 아래, 네 개의 집회소에 600~700명의 회원과 친척 및 이웃들을 임시로 수용했다. 페루 민방위 기관과 공조하는 가운데 교회는 10,000장의 담요와 텐트, 기본적인 야영 장비와 같은 비상 물품들을 제공했다.

교회 복지 봉사부 대변인 릭 포스터는 물품 운반책을 제공해 준 디에이치엘과 아스타 항공화물의 관대함에 대해, 그리고 우유를 제공해 준 그로스너 식품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페루의 영부인 필라 노레스 테 가르시아 여사는 우유가 가장 시급한 품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포스터 형제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교회의 핵심 사명 중 하나이며, 다른 사람들이 교회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일”에 기꺼이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



사진 제공: 아크라시 살롱

가나 아크라 아덴타 스테이크, 마디나 2워드의 클라렌스 코피 감독이 교회가 보내온 구호 물품들을 지난 10년간 가나에서 가장 혹독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전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진흙으로 지은 집이 홍수로 파괴되었을 때 30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2008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2008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부합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얻는 힘”을 참조한다.

1.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두 가지를 통해 복음대로 생활한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복음대로 생활함이라고 적는다. 복음대로 생활함 아래에 두 칸을 만든다. 첫 번째 칸에 말이라고 적고, 두 번째 칸에 행동이라고 적는다.

성경에서 몇 가지 경전 이야기를 나눈다. (다니엘, 모세, 노아, 침례 요한 등) 어린이들에게 경전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대로 생활했는지 귀 기울여보라고 한다. 아이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어린이들의 대답을 살펴본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몇 개의 사례 연구를 만든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5~166쪽 참조) 초등회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사례 연구를 한 가지씩 준다. 각 그룹이 사례 연구에 대해 토의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그런 후 그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게 한다. 그들의 생각을 칠판에 적는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주님의 복음 따라”(어린이

노래책, 72쪽)를 부른다.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간증한다.

“예언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59쪽)나 “물문경 이야기”(어린이 노래책, 62쪽)의 선택 절들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경전 인물들과 그들이 생활하고 가르쳤던 복음 원리들을 알아내는 단서가 담긴 알아맞히기 게임을 만든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59~160쪽 참조) (어린이들을 위해, 경전 인물들을 알아맞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다. 어린이들이 경전 인물들을 알아맞히면, 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고 각 인물들이 행했던 복음 원리에 대해 토의한다. 경전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들이 복음 원리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모든 경전 인물을 알아맞히고 관련된 절들을 다 부를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경전은 어떻게 하면 복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어린이 노래책, 36쪽) 어린이들의 그림을 가져와 어린이들에게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부탁할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불러 준 다음 질문한다. “이 아이는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어린이들의 답을 듣는다. 어린이들에게 함께 이 소절을 부르라고 제안한다. 노래의 제목을 알려 주고 이 노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이라고 설명한다.

과도에 적절한 가사를 보여 준다. 1절 첫째 줄을 어린이들에게 불러 주고 “들려주세요”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한다.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하지 토의한다.

둘째 줄을 어린이들에게 불러 주고 다 같이 그 소절을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면” 어떤 것을 묻고 싶든지 말해보라고 한다.

셋째 줄을 어린이들에게 불러 준다. 어린이들에게 셋째 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복음 그림 패킷의 신약 그림들을 보여 준다. 셋째 줄을 다같이 부른다. 어린이들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1절을 다같이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간증한다. ■



가정이 역경을 대비하도록 돕다

교회 공식 웹사이트 News room "10 Million Pamphlets in 23 Languages Help Families Prepare for Adversity"
(<http://newsroom.lds.org/ldsnewsroom/eng/>)

솔 트레이크시티 2007년 4월 20일 데이비드와 제니 세이가 최근 교회로부터 두 개의 팸플릿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자연 재해나 실직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팸플릿들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과 그 실용적인 내용에 감명받았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 있는 마을 론서스턴까지의 거리는 꽤 멀다. 하지만 자력구제와 자립을 강조하는 최근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이미 론서스턴 지역을 넘어 세계 전역의 여러 지역에 전해졌다.

기본적인 가족 재정 및 식량 비축 원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부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두 간행물 가족 재정 및 가족 가정 비축이 배부되고 있으며, 이 두 팸플릿은 23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데이비드와 제니 세이는 그들의 예산을 토의하기 위해 가족 재정에 나오는 원리들을 활용한다.

두 개의 새로운 팸플릿은 전 세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르치기 위해 23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새로운 팸플릿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 방방 곡곡에 건설한 가족 복지 풍토를 가르치고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족 재정 팸플릿은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팸플릿은 "지출 기록을 남길 것, 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검토할 것,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가족 가정 비축 팸플릿은 가족들에게 "상수도가 오염되거나 파괴될 때를 대비해 식수를 비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스나 탄산음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니 세이의 누이인 웬디 앳킨슨 역시 팸플릿에 나온 정보의 간결성과 유용성에 감명받았다. "제가 받은 첫 인상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여기 나온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천하는데 무리가 따르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말이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필리핀 마리카나 출신이며 두 자녀의 어머니인 벨린다 보릴라는 새로운 팸플릿이 매우 간단 명료하면서도 여전히 준비와 대비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팸플릿의 내용과 구성이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서 이러한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회 복지 서비스부의 제프 뉴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가정 비축과 가족 예산 세우기의 간단한 원리들을 가르치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팸플릿은 몇 가지 품목의 식량을 비축하고, 새지 않는 용기에 물을 채우며, 매주 몇 푼의 동전을 저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것이 비록 작은 노력일지라도 가족들이 실제로 역경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신앙을 세운 조셉 스미스부터 교회의 현재 회장인 고든 비 헝클리에 이르기까지, 후기 성도 지도자들은 1800년대부터 검소한 생활방식과 자립의 원리를 가르쳐왔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 노동, 절약, 저축, 봉사와 후한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예기치 못한 어려운 시기를 위해 물품을 비축하는 것 등에 관계된다.

최근에 열린 교회의 세계 반 연차 대회에서, 감리 감독단의 키스 비 맥멀린 감독은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헝클리의 말을 인용했다.

"약간의 식량을 보관해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

우리는 아주 검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 분량으로 그런 다음 석 달 분으로 늘일 수 있습니다. ...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식량 비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여 ... 점차 알맞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청소년들의 “표준 복장 패션쇼”

패션쇼라고 하면 으레 화려한 조명과 감각적인 음악, 그리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옷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청소년들이 준비한 ‘표준 복장 패션쇼’는 다르다. 화려한 조명 대신 모델들의 환한 미소, 그리고 최신 유행의 옷 대신 단정하고 정갈한 표준 복장이 무대를 빛냈다. 표준 복장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창원 와드 청소년과 역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패션쇼의 현장으로 함께 가 보자.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음악과 함께 멋지게 차려입은 청남 청년이 등장했다.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청남이 꽃잎을 뿌리자 노란 색 윷옷에 예쁜 치마를 입은 청년이 그 밑에서 빙그르 돌았다. 귀엽고 재미있는 모습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잠시 후, 여름이 연상되는 경쾌하고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무대에 등장한 청소년들의 워킹도 발랄하게 변했다. 고개를 흔들며 리듬을 타고,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여느 모델 못지않았지만 여름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짙고 노출이 심한 옷이 아니라 적당한 길이의 소매가 달린 윷옷과 무릎을 덮는 치마, 그리고 반팔 와이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었다는 사실이 다른 점이었다. 관객들은 그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에 또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다음은 가을의 차례. 관객들은 청소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하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였다.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면서 등장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이었다. 청년은 길게 내려오는 윷옷과 긴 치마로 가을의 정취를 뽐냈고, 단정한 정장 복장을 한 청남은 한 손에 책을 들고 한껏 분위기를 잡았다. 그리고 뒤이어 뿌려진 낙엽까지, 그야말로 가을의 서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사랑스러운 음악과 따뜻한 의상이 함께 한 겨울 워킹. 관객들은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코트를 걸친 청소년들을 향해 신나는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창원 와드 청소년들이 ‘표준 복장 패션쇼’를 계획하게 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덕

분이었다. 전국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창원 와드 청소년들도 토요일이면 학원이나 친구들과 모임으로 무척 바빴다. 그런 와중에도 열세 명의 청남들과 열 명의 청년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토요일 상호향상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고민이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을까?’ 였고, 그때부터 청남 청년 회장단과 청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창원 와드 청년 회장인 정의순 자매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중 ‘선택과 책임’ 부분의 가치관 활동을 살펴보게 된 것도 그 연구 때문이었다. 그때 정 자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지침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이나 다른 청소년들이 주님의 표준

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토론 그룹, 패션쇼, 또는 다른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구절 속에서 정의순 자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패션쇼’라는 단어. 한창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패션쇼를 하되, 표준 복장과 연관 지어 활동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늘 입는 표준 복장으로 무슨 패션쇼를 하느냐는 청소년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무릎을 덮는 치마를 입고, 소매가 달린 옷을 입는 게 ‘촌스럽고, 유행에 뒤처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요즘이기에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창원 와드 청년 회장단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강권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청소년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이라서 신선하고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결국 멋진 패션쇼를 펼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그때부터 창원 와드 청소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청남 청녀 회장단은 표준에 대해서만 가르쳤을 뿐 대부분의 모임 준비는 청소년들이 직접 했기 때문이다. 일단 패션쇼에서 입을 옷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든 일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진 단정하고 예쁜 옷을 들고 왔고, 부족한 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빌리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옷들 중에서 사계절이라는 테마에 맞게 옷들을 골라냈다. 계절의 느낌에 따라 색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를 조화롭게 고르는 동안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표준복장 패션쇼’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옷을 고른 다음에는 워킹 연습에 들어갔다. 자신들이 입을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동작과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청소년들은 돌씩 짝을 이뤄 틈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관객들 앞에서 무대를 누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했지만, 청소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차근차근 패션쇼를 준비했다. 청남 청녀 회장단과 창원 와드 회원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우정의 모임 등을 계획해 패션쇼를 성황리에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

3주 동안의 준비와 연습이 결실을 맺은 패션쇼 무대의 마지막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김언정 자매는 창원 와드 청소년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장과 외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옷 입는 방식은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단정한 복장에 관한 표준이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표준들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표준을 지킴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고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자매의 메시지는 비단 패션쇼를 관람한 회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산 스테이크의 모든 청소년들, 나아가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패션쇼를 통해 표준복장의 중요성을 알게 된 창원 와드 청소년, 자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창원 와드 청남인 이성관 형제는 “평소에 표준복장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패션쇼를 통해 어렵고 힘든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표준복장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청녀 서란희 자매도 “패션쇼를 통해 표준복장으로 얼마든지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녀 회장단으로서 패션쇼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격려했던 신지혜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열심히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표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단들도 한 번 더 주님의 복음과 표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표준복장에 관하여 가르침을 서로 주고 받는 패션쇼는 참으로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마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김익수 회장의 말처럼 창원 와드 청소년들의 ‘표준복장 패션쇼’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상호향상모임이었다.

쇼는 끝났다. 모든 쇼가 그렇듯이 끝난 후의 무대는 쓸쓸하다. 그러나 표준복장 패션쇼가 펼쳐진 그곳은 주님의 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패션쇼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청소년들의 신앙과 간증이 무대 곳곳에 배어 있다. 무대를 떠나며 청남 배성혜 형제가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 훌륭한 상호향상모임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알 수 있다.

“... 앞으로도 계속 단정하고 표준적인 복장을 하겠습니다.”

■ <기사, 사진 제공: 김민정 기자>



세대를 잇는 행복의 다리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의 박성률 감독과 송창해 자매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메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심 속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정겨움과 함께 포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메주만큼이나 정겹고 고소한 사랑을 뿜어내는 박성률 감독의 가족은 삼대가 함께 모여 모두 일곱입니다.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은 할아버지 박정주 형제와 할머니 이춘매 자매입니다. 그리고 박성률 감독과 아내인 송창해 자매가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꿈이라는 큰딸 경연이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주영이, 그리고 춤과 노래로 끼가 넘치는 막내 세연이는 집안의 웃음과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이 되면 박성률 감독 집은 시끌벅적 해 집니다. 할아버지부터 막내 손녀까지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즐겁게 활동을 하는 모습은 세대를 초월한 행복을 보여줍니다.

새해의 첫 월요일이었던 지난 1월 7일에도 가정의 밤은 열렸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박성률 감독의 공과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연이와 주영이, 그리고 세연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과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는 세 명의 아이들은 의젓해 보이까지 합니다. 둘째 주영이는 “아빠의 공과가 재미있다”고 말하며 방긋 웃습니다.

그래도 어디 활동만 할까요. 공과가 끝나고 활동이 시작된다면 말에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이고 활기 넘칩니다. 덩달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좋아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연이와 주영이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에서 울리는 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변하는 모습은 흡사 화목한 박성률 감독 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내 세연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섯 살짜리 이 재간둥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이른바 ‘텔미



한지 공예 활동을 하는 박성률 감독 가족과 조카인 윤현정 자매(오른쪽에서 두 번째), 윤경민 형제(오른쪽에서 네 번째)

댄스’를 선보입니다. 앙증맞은 손으로 이리저리 허공을 휘젓는 모습이 진짜 가수 못지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박수에 신이 났는지 평소보다 더 신나게 춤을 추는 세연이와 그런 세연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니다. 장기자랑을 끝낸 후 엄마가 준비한 한지 공예를 합니다. 주로 활동을 담당하는 송창해 자매는 다양한 연령대의 식구들을 고려해서 매주 세

심하게 준비합니다. 오늘의 한지 공예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활동입니다. 각자 껌받침, 쟁반, 꽃병을 만들면서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세 명의 아이들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집중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송창해 자매는 “아빠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의 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빠인 박성률 감독은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서 가정의 밤을 통해 복음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가정의 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 자녀가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계획”이라고 간증을 전합니다.

교회와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사까지 했다는 박성률 감독의 집은 마당이 너른 단독주택입니다. 덕분에 전주 와드 회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가족과 합동 가정의 밤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당에는 숯불이 올라가고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는 박성률 감독과 송창해 자매의 웃는 얼굴에서는 마음의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티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인자한 모습으로 가족을 챙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복이 함께 합니다. 오랜 시간 묵혀야 제 맛인 메주처럼 박성률 감독과 그 가족들의 사랑과 행복은 하루하루 맛있게 익어갑니다. ■

〈기사, 사진 제공: 이나나 기자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를 ... 온 땅 위에 세우기 위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저녁 시간, 불을 환히 밝히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모이기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참석하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한국 공보 위원회 모임. 그들이 참석한 모임의 이름이다. ‘각종 활동 사항을 널리 알림’이라는 뜻의 단어 ‘공보’가 들어가는 이 특별한 위원회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



뒷줄 왼쪽부터 허용환 형제, 이원강 형제, 김지애 자매, 마우어 자매, 마우어 장로, 최석구 형제, 이용환 장로

두운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우기 위해”(교리와 성약 1:30) 1987년에 조직되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한국 공보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 공보 평의회 의장으로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가, 또한 한국 공보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석구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허용환 형제와 이원강 형제, 그리고 김지애 자매와 공보 선교사인 마우어 장로 부부가 주님의 사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공보 위원회는 작년에 있었던 ‘더 파이브 브라운즈 내한 공연’처럼 큰 모임의 준비는 물론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교회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일을 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휠체어를 전달하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공보 위원회의 일이다. 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명 인사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도 공보 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관련된 오보나 무분별한 비난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정확한 교회 관련 기사를 신기 위해 미디어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것이 한국 공보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교회 관련 자료들 중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교회에 관계되는 기사나 방송을 발견하면 공보 위원회에 연락

을 하고, 여론 주도층 인사와 친분이 있다면 공보 위원회에 그들을 소개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공보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도 공보 위원회를 돕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교회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라면 한국 공보 위원회는 열심히 물살을 가르는 다리다.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한국 공보 위원회의 형제자매들은 늦은 저녁 시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대에 교회의 불을 밝힌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한국 공보 위원회는 오늘도 열심히 물살을 가른다. ■

“따뜻한 봉사의 손길”

연 말연시의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던 2007년 12월 7일,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유조선에서 원유가 흘러나와 물 맑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태안반도 일대를 덮친 것이다. 일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는 바다는 물론이고 해변과 섬들, 그리고 일대의 모든 생물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말았다. 원유를 모두 걷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기름 제거에 참여한 구승훈 회장(왼쪽)과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오른쪽)

이 들려왔다. 하지만 원유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는 바닷새들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오염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연일 보도되면서 서서히 기적이 일어났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도움의 손길이 태안반도로 몰려든 것이다.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든 자원봉사자들은 매섭게 몰아치는 바닷바람과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없이 원유가 묻은 돌맹이를 닦고 모래를 퍼 날랐다. 그렇게 태안반도로 몰린 자원봉사자의 수가 1월 첫주까지 백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후기 성도 회원들도 있었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회원들은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태안을 찾았다. 일찌감치 선거를 끝내고 모인 회원들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다. 태안반도 일대의 바닷가는 인접 지역에 사는 서산 지부 회원들에게는 무척이나 각별한 곳이었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겼고, 겨울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던 바로 그 곳이 오염돼서 죽어간다는 사실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김용갑 서산 지부 회장은 직접 본 사고 현장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한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안을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동참을 했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기꺼이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 스테이크는 지난 12월 22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를 필두로 스테이크 내의 6개 와드 지부 회원 63명은 ‘의항리’라는 조그만 항구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했다. 평소라면 갈매기들이 날아들고 작은 고깃배가 드나들었을 항구에는 시커먼 기름때만이 가득했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밀려들어와 갯벌과 바위에 달라붙는 기름들은 사고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워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 바닷가는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나 신권 지도자 모임으로 몇 번이나 방문했던 곳이어서 그 아픔과 충격이 더했다.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은 망설임 없이

기름 구덩이 해변으로 뛰어들었다. 방파제와 그 밑으로 이어진 바위 곳곳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동안 차가운 겨울바람이 무색하게도 회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한편, 길게 늘어난 자원봉사자들의 차량과 해변에 뽁뽁하게 모여 기름을 제거하거나 식음료를 지원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에게도 감격 그 자체였다.

후기 성도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2008년에도 계속됐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은 지난 1월 11일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은 기름 제거를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또한 한국 관리 본부 직원들도 지난 1월 19일 태안을 찾아서 막바지 방제 작업에 뛰어들어 모사이아서 18장 9절의 말씀처럼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했다. ■



태안반도 기름 제거에 참여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

캐나다 밴쿠버 한인 성도들의 음악 노변의 모임



훨씬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인들끼리만의 모임을 갖는데, 음악 노변의 모임도 그 중 하나였다. 먼 타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 게다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기쁨이다. 한인 성도들은 서로 단합하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인 감흥이 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사랑과 영적인 느낌이 있었기에 밴쿠버 스테이크 코키타람 와드에서

지난 2007년 11월 17일 캐나다 밴쿠버의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했던 이 음악 소리는 한국인 후기 성도들이 준비한 음악 노변의 모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는 15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90명 정도가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말로 성찬식과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한인 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수는 30여 명쯤 된다.

이번 음악 노변의 모임도 이들 ‘한인 그룹’의 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물론 현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교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진행된 음악 노변의 모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 100여 명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현지 회원들까지 모인 이 모임에서는 오르간 독주, 바이올린 독주, 합창, 중창, 현악 앙상블 등 다양한 음악 순서가 참석한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음악 순서 중간에 말씀을 전한 권찬태 장로와 김정애 자매는 캐나다에서 봉사 중인 부부 선교사다. 특히 김정애 자매는 음악 선교사로 부름 받아 이번 음악 노변의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권 장로는 “이 모임에서 울려 퍼진 화음의 메아리와 사랑의 열기가 한인들의 단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벽찬 간증을 전했다.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화 기자>

지난 2008년 1월 5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 42명과 청소년 역원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일 청소년대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의 친목과 단합, 우정을 목적으로 한 “도미노 블록 쌓기” 활동은 나이별로 6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은 스스로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연결하였다. 최초의 칩을 넘어뜨리면서 전체 도미노가 완전히 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청소년들과 회원들은 하나가 되어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난 2007년 12월 23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진학지도 세미나”**가 열렸다.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이 초대된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효과적인 시간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지난 2007년 12월 15일 순천, 여수, 광양 지부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 우수작 발표를 겸하여 **청년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부의 청년 회장단과 청년이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형상일 기자>

지난 2007년 12월 23일 서울 남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예년과 같이 **크리스마스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 남 스테이크 합창단과, 봉천 와드 회원들, 그리고 온누리 합창단, 인천 위트니스 합창단과 함께 특별 초대 손님인 바이올리니스트 양효우 형제의 공연이 있었다.

안양 스테이크 <황미주 기자>

안양 스테이크의 2007년 마무리는 초등회 어린이들의 열정으로 장식되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네 시에 스테이크 센터인 산본 와드에서 2007년 안양 스테이크 **초등회 예술제**가 열린 것이다. 이날 모임은 스테이크 내 다섯 개 와드의 초등회 어



린이들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이하나 기자>

지난 2007년 12월 1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녀 창립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앙 담는 컵”이라는 주제로 컵에 물감을 이용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 넣는 활동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15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대제사 부부 모임**이 있었다. 전주 스테이크 노래패의 공연과 림보와 풍선 멀리 날리기 등의 다채로운 모임으로 진행된 이날은 대제사 부부들에게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황광범(전임: 정혜영)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감독: 이종복(전임: 황재식)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6기 8명/해외 4명



강소피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조현아 자매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대전 선교부



길한나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차요나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김성대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와드
서울 선교부



박병천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뉴욕 남 선교부



김태연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박종한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일본 삿포로 선교부



이슬기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배상화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뉴욕 남 선교부



전해린 자매
서울 스테이크
삼정 와드
부산 선교부



송가영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템플 스퀘어



1월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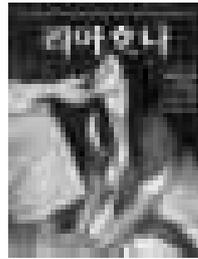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리아호나 2007년 색인

이 색인에는 저자 항목, 주제 항목, 그리고 제목 항목(이탤릭체)이 담겨 있다.

친=친구들

연차 대회 출판 일정으로 인해, 2007년 색인이 2008년에 실리게 되었다. 이 색인을 2007년 12월호에 삽입해 둘 수도 있다. 2007년에 리아호나는 51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월간 발행은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로, 6번(1, 4, 5, 7, 10, 11월)은 인도네시아어 및 헝가리어로, 6번(1, 4, 6, 7, 10, 12월)은 몽골어 및 캄보디아어로, 1년에 4번(4, 5, 10, 11월)은 루마니아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체코어, 타히티어, 폴란드어 및 피지어로, 4번(1, 4, 7, 10월)은 아이티어, 키리바시어, 타밀어 및 텔루구어로, 3번(4, 7, 10월)은 우르두어로, 3번(4, 10, 11월)은 알바니아어로, 2번(4, 10월)은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말라가시어, 에스토니아어 및 신할라어로, 1년에 1번(4월)은 그리스어, 마셜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크로아티아어 및 힌디어로, 1번(10월)은 비슬라마어로 발행되었다.

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4월호, 25

가르시아-레부타르, 라켈 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6월호, 38

가르침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톰 페리, 6월호, 50

교회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메릴, 1월호, 38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6월호, 56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줄리 비 백, 11월호, 76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월호, 16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1월호, 73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74

읽고 쓰는 능력은 삶을 향상시켜 줌, 10월호, 26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104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니엘 케이 지드, 11월호, 93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톰 페리, 6월호, 50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12월호, 43

가장 위대한 선물

엘리자베스 리스, 12월호, 친4

가정 (가족 참조)

가정

캐롤린 아이어링 마이너와 케이 뉴얼 데일리, 10월호, 친10

가정 복음 교육

가정복음교사와 기도함, 주디 스톤, 10월호, 47
잊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톰슨, 12월호, 44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메리 앤 쿡, 11월호, 11

가정복음교사와 기도함

주디 스톤, 10월호, 47

가정의 밤

선지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친2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라켈 엠 가르시아-레부타르, 6월호, 38

가족 (또한 결혼, 어머니 참조)

가정, 캐롤린 아이어링 마이너와 케이 뉴얼 데일리, 10월호, 친10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메리 앤 쿡, 11월호, 11
가족의 신앙, 엘리자베스 리스, 7월호, 친4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11월호, 95
기억할 수 없는 선물, 게리 알 왕스거드, 9월호, 47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페 모랄레스 곤잘레스, 1월호, 36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바바라 톰슨, 11월호, 115
마이클을 그리워함, 세이라 킨드레드, 10월호, 친12
사이 좋게 지내기, 2월호, 43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셸리 알 클라인, 7월호, 14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엠 러셀 밸라드, 11월호, 25
엄마의 냉장고, 엠마 이 산체스 산체스, 2월호, 8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1월호, 73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이제 됐다,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7월호, 친10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104
한 장의 팸플릿, 돈 엘 설, 8월호, 7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마리아마 칼론, 8월호, 35

가족 역사

갈베르토 아저씨의 기억력, 에스더 라비브 드 베루벤, 10월호, 44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10월호, 46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킴, 아담 시 울슨, 10월호, 8

가족의 신앙

엘리자베스 리스, 7월호, 친4

가프, 가렛 에이치

스펜서 더블류 킴볼: 행동하는 사람, 1월호, 28

간증 (또한 신앙 참조)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일린 에스피노사 미라, 1월호, 44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시니, 아담 시 울슨, 1월호, 20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기 위해 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12월호, 40
산에서 트인 돌,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3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2
선지자에 대한 간증,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0월호, 19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1월호, 46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5월호, 78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러셀 엠 넬슨, 2월호, 친15
영감을 주는 생각들,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
영적 생각,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1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2월호, 25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엔리케 알 팔라벨라, 11월호, 14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11월호, 100
일본인 8 형제, 타다시 키나, 6월호, 44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11월호, 78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3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답, 그리고어 에이 타데보시안, 10월호, 38

감독

감독을 지지함, 조셉 스테이플스, 6월호, 30
스즈 감독님을 지지함, 세이라 킨드레드, 2월호, 친12

감독을 지지함

조셉 스테이플스, 6월호, 30

감사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66

감사: 행복으로의 길

보니 디 파킨, 5월호, 34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일린 에스피노사 미라, 1월호, 44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6

가증 (또한 선교 사업 참조)

너희는 거듭 나아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19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122
시, 엘리스 포크너, 4월호, 44
시작까지 견뎌, 마리아 카네바, 10월호, 29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3월호, 46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쟈슨, 5월호, 11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11월호, 100
이제 됐다,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7월호, 친10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11월호, 78
한 장의 팸플릿, 돈 엘 설, 8월호, 7

회개와 개심, 러셀 엠 넬슨, 5월호, 102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마리아마 칼론, 8월호, 35

개혁자

개혁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7월호, 42
시온으로 집합함, 7월호, 친8
아이오아를 기억함, 캐롤라인 에이치 벤즐리, 7월호, 8

개혁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얼 시 텅기, 5월호, 29

개혁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7월호, 42

거룩한 땅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친2

거룩함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7월호, 25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7월호, 25

격려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16

견디어 냄

개혁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7월호, 42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1월호, 18

결심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

결정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엘리자베스 리스, 3월호, 친4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90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안네 그렌체바흐, 2월호, 40

결혼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브루스 시 하넷 및 마리 케이 하넬, 8월호, 26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
귀걸이, 빅터 마카로브, 1월호, 12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8월호, 44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제임스 웰치, 9월호, 26
이혼, 델린 에이치 옥스, 5월호, 70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텅기, 4월호, 26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캐서린 에드워즈, 3월호, 32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브루스 시 하펜 및 마리 케이 하펜, 8월호, 26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

경건

성전을 경외함, 폴 밴덴버그, 2월호, 10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젠슨, 5월호, 11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11월호, 95

경고의 음성

테리 리드, 8월호, 친10

경전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톰 페리, 6월호, 50
경전상의 증거, 러셀 엠 넬슨, 11월호, 43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6월호, 56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주모리, 5월호, 76
성경 읽기, 3월호, 친6
성경의 기적, 엠 러셀 벨라드, 5월호, 80
쉬지 말고 턱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15
신약전서, 1월호, 친8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러셀 엠 넬슨, 2월호, 친15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친2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월호, 친8

경전 속의 영웅들

에리 반 더 그래프, 8월호, 친13

경전상의 증거

러셀 엠 넬슨, 11월호, 43

제시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90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콩키, 9월호, 8

교원용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3월호, 41
친절, 6월호, 친10

교결성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위스틴, 5월호, 45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엘리자베스 리스, 8월호, 친4

곤잘레스, 모이세스 네피 모랄레스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1월호, 36

곤잘레스, 윌터 에프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11월호, 53

골드립, 레이

끝없는 미소, 9월호, 친12

골든, 크리스토퍼 이세

작고 단순한 일, 11월호, 78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5월호, 51

공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118

관계 (의사소통 참조)

광야의 태버내클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3

교육

번제, 조셉 레이 브릴런테스, 9월호, 40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월호, 친8

교장실에서의 정의만 반지

레베카 에프, 3월호, 친16

교회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매릴, 1월호, 38

교회 성장

산에서 뜨인 돌,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3
저는 깨닫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60

교회 역사

광야의 태버내클,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43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젠슨, 5월호, 36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말린 케이 젠슨, 12월호, 26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재현납,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39
조셉 스미스의 일지, 마크 에쉬얼스트 맥기와 알렉스 스미스, 12월호, 32

교회 참석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텅기, 4월호, 26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월호, 22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어, 10월호, 45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6월호, 56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6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9월호, 31

군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6월호, 25

귀결이

빅터 마카로브, 1월호, 12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데니스 버크스, 2월호, 45

귀를 기울여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3월호, 25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6월호, 41

그레이, 덴

의설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7월호, 38

그레이엄, 팻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인물과 해설, 12월호, 친8

그렌체바흐, 안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2월호, 40

그리피스, 토마스 비

기독교 교리의 근원, 8월호, 12

그분은 살아 계시다!

엘리자베스 리스, 4월호, 친4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데니스 엘 맥대니얼, 4월호, 8

금식 헌금

십일조 및 기타 헌금, 4월호, 39
존 형제의 금식헌금, 그레그 버고인, 9월호, 44

가꾸찌, 요시히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라?, 5월호, 97

기도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11월호, 86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월호, 22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차드 지 스코트, 5월호, 8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다니엘 오피쇼, 8월호, 46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2
두려움의 반대, 패트리샤 알 존슨, 1월호, 친14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주모리, 5월호, 76
쉬지 말고 턱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15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118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4월호, 47
왕 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9
위험으로부터의 기적적인 탈출, 마이라 호크 덕, 6월호, 친12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3월호, 친1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12월호, 12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우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55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차드 지 스코트, 5월호, 8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다니엘 오펜쇼, 8월호, 46

기독교 교리의 근원

토마스 비 그리피스, 8월호, 12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호, 24

기쁨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1월호, 18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백, 5월호, 109

기억하십시오

엘리자베스 리스, 6월호, 친4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젠슨, 5월호, 36

기억할 수 없는 선물

게리 알 왕스거드, 9월호, 47

기억함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젠슨,
5월호, 36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66

길베르트 아저씨의 기억력

에스더 라비브 드 베루벤, 10월호, 44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80

깨끗함

저는 깨끗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60

끝없는 미소

레이 골드럽, 9월호, 친12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

L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피 모랄레스 곤잘레스, 1월호, 36

나오미 후고, 스위스 민헨스타인

김벌리 웹, 1월호, 친10

나의 마지막 기회

루이스 멜라, 8월호, 4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에릭 더블류 코우퍼쉬케, 11월호, 33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토마스 에스 문슨, 5월호, 22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월호, 113

내가 너를 곤세계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바바라 톰슨, 11월호, 115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었는지

말린 케이 젠슨, 12월호, 26

너희는 거듭 나아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19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엘리자베스 리스, 10월호, 친4

넬슨, 러셀 엠

경전상의 증거, 11월호, 43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2월호, 친15

회개와 개심, 5월호, 102

노래

가정, 캐롤린 아이어링 마이너와 케이 뉴얼
테일리, 10월호, 친10

한 천사 조셉에게 와, 안나 존슨과 에이 로렌스
리온, 4월호, 친13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엘리자베스 리스, 3월호, 친4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2

농장에서 일함

1월호, 친6

놓쳐 버린 월드컵

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6월호, 37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10월호, 46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5월호, 94

C

다 실마,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한 특별한 지도자, 1월호, 37

다툼

숨겨진 췌기의 위험, 토마스 에스 문슨, 7월호, 2
싸움은 안 돼, 앨런 에스., 2월호, 친10

단정함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12

달퀴스트, 찰스 더블류, 이세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5월호, 94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엘 톰 페리, 7월호, 30

대중 매체

약간의 폭력?, 8월호, 22

더욱 쉽게 용서함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친2

덕성

의식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덴
그레이, 7월호, 38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12

진정한 자신감, 본부 청년 및 청년 회장단,
1월호, 8

데 멜로, 수자나 알베스

놓쳐 버린 월드컵, 6월호, 37

데이 오오스, 벤하민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9월호, 친10

테일리, 케이 뉴얼 과 캐롤린 아이어링 마이너

가정, 10월호, 친10

도덕성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테니스 엘 맥대니얼,
4월호, 8

독신 성인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8월호, 2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제임스 웰치, 9월호,
26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캐서린
에드워즈, 3월호, 32

돌튼, 일레인 에스

이 길에 머무십시오, 5월호, 112

돌튼, 일레인 에스, 수잔 더블류 테너, 줄리 비 백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10월호, 32

동등성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브루스 시 하펜 및 마리 케이 하펜, 8월호,
26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6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제프리 알 홀런드, 10월호, 40

동성애에 이끌림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제프리 알
홀런드, 10월호, 40

동정심 (또한 봉사 참조)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문슨, 3월호, 2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3월호, 41
큰 계명, 조셉 비 워스런, 11월호, 28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문슨, 3월호, 2

두려움의 반대

패트리샤 알 존슨, 1월호, 친14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11월호, 70

두려워 말라

엘리자베스 리스, 1월호, 친4

드 베루벤, 에스더 라비브

길베르트 아저씨의 기억력, 10월호, 44

디 레이온, 아나벨라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9월호, 45

디아즈,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함께 나누는 성찬절, 12월호, 17

딕, 마이이라 호크

위험으로부터의 기적적인 탈출, 6월호, 친12

딕슨, 존 비

주님께 드리는 약속, 5월호, 14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10월호, 2

ㄹ

라스무센, 헨리

신병, 12월호, 47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이온, 9월호, 45

레오네, 콘수엘로 코네사

가장 소중한 선물, 12월호, 43

로리며, 릴리 엠

충분한 금식, 9월호, 39

로비슨, 엘윈 시

오렌지색 자동차, 6월호, 42

로즈, 제니퍼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2월호, 친8

우정 팔찌, 3월호, 친8

로페즈, 세르지오 아드리안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3월호, 46

리드, 테리

경고의 음성, 8월호, 친10

리밋, 멜빈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틴에 사는 클라라

크리스티슨, 4월호, 친10

리스, 로리

양복, 1월호, 45

리온, 에이 로렌스와 안나 존슨

한 천사 조셉에게 와, 4월호, 친13

리차즈, 에이치 브라이언

하늘 문, 4월호, 40

리치, 제임스 더블류

한 사람에게 한 양동이씩, 2월호, 46

릭스, 엘리자베스

가장 위대한 선물, 12월호, 친4

가족의 신앙, 7월호, 친4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8월호, 친4

그분은 살아 계시다!, 4월호, 친4

기억하십시오, 6월호, 친4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10월호, 친4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3월호, 친4

두려워 말라, 1월호, 친4

신앙으로 주님 따르라, 2월호, 친4

주님 봉사하셨네, 9월호, 친4

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11월호, 51

마이너, 캐롤린 아이어링과 케이 뉴얼 테일러

가정, 10월호, 친10

마이클을 그리워함

세일라 킨드레드, 10월호, 친12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키 오먼, 2월호, 44

마주모리, 비키 에프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5월호, 76

마카로브, 빅터

귀걸이, 1월호, 12

막스, 멜라니

핫 초코 사건, 12월호, 친14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나니

아담 시 올슨, 1월호, 20

말도나도, 실비아 데 모스쿠이

절대로 늦지 않았음, 3월호, 45

말하기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엘 톰 페리,
7월호, 30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랜드, 5월호, 16

맥대니얼, 테니스 엘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4월호, 8

맥멀린, 키스 비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 5월호, 51

맥쿱기, 브루스 알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9월호, 8

메디나, 게오바니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8월호, 44

메레니, 빅토리아

모범이 되는 공연, 7월호, 47

메릴, 에이 로저

교회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1월호, 38

멜라, 루이스

나의 마지막 기회, 8월호, 45

몇 가지 실수를 한 후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잘못을 범할까 두려웁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6월호, 22

모독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엘 톰 페리,
7월호, 30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8월호, 2

모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6월호, 25

놓쳐 버린 월드컵, 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6월호, 37

모범의 힘, 6월호, 친6

모범이 되는 공연, 빅토리아 메레니, 7월호, 47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엠 러셀 벨라드,
11월호, 25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1월호, 46

일본인 8 형제, 타다시 키나, 6월호, 44

핫 초코 사건, 멜라니 막스, 12월호, 친14

모범의 힘

6월호, 친6

모범이 되는 공연

빅토리아 메레니, 7월호, 47

모스테르, 베티 르바론

어머니의 성탄절 생쥐, 12월호, 44

목표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워스런, 5월호, 45

몬슨, 토마스 에스

거룩한 땅, 9월호, 친2

내 구주 살아 계시다, 5월호, 22

동정심이라는 선물, 3월호, 2

따라야 할 모범, 10월호, 2

숨겨진 췌기의 위험, 7월호, 2

신권-성스러운 은사, 5월호, 57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4월호, 친2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11월호, 118

왕 같은 제사장, 11월호, 59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6월호, 74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월호, 친2

치명적인 마카페케, 6월호, 친2

태버나클의 추억, 5월호, 41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11월호, 21

물문경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12월호, 43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일린 에스피노사 미라,
1월호, 44

경전상의 증거, 러셀 엠 넬슨, 11월호, 43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6월호, 41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게리 제이 콜먼,
5월호, 92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11월호,
78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답, 그리고어 에이
타데오시안, 10월호, 38

한 천사 조셉에게 와, 안나 존슨과 에이 로렌스
리온, 4월호, 친13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주모리, 5월호, 76

몽골 울란바토르의 온돈잡츠

돈 엘 설과 줄리 위델, 10월호, 친14

몽골, 신앙의 초월 시대

돈 엘 설, 12월호, 18

무라에, 노리에 츠바키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3월호, 47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제니퍼 로즈, 2월호, 친8

문자 메시지를 보냄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러셀과 브래드
윌콕스, 8월호, 18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8월호, 17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리셀과 브래드 윌콕스, 8월호, 18

미라, 마이런 에스피노사

강도, 책, 그리고 간증, 1월호, 44

미루기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5월호, 89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11월호, 49

B

바스콘셀루스, 알렉산드레 마차두

추구나, 선교 사업이나?, 6월호, 34

반대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

방문 교육 메시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4월호, 25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7월호, 25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6월호, 25

귀를 기울여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3월호, 25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2월호, 25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8월호, 25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2월호, 25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0월호, 25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월호, 25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9월호, 25

방문 교육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월호, 113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일레인 피어슨, 9월호, 46

배움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톱 페리, 6월호, 50

교회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메릴, 1월호, 38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제프리 알 홀런드, 6월호, 56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월호, 16

읽고 쓰는 능력은 삶을 향상시켜 줌, 10월호, 26

맨덴버그, 폴

성전을 경외함, 2월호, 10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4월호, 18

벨라드, 엠 리셀

성경의 기적, 5월호, 80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11월호, 25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엠

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 3월호, 10

버고인, 그레그

존 형제의 금식헌금, 9월호, 44

버지, 비키 에이치

정직한 모건, 3월호, 친11

버크스, 데니스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2월호, 45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5월호, 32

번제

조셉 레이 브릴런테스, 9월호, 40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아론 엘 웨스트, 9월호, 32

베드나, 데이비드 에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11월호, 80

너희는 거듭 나야 하리라, 5월호, 19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9월호, 16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10월호, 친8

베어, 스티븐

교회로 가는 길, 10월호, 45

백, 줄리 비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5월호, 109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11월호, 76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11월호, 109

백, 줄리 비, 수잔 더블류 태너, 일레인 에스 돌튼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10월호, 32

벤즐리, 캐롤라인 에이치

아이오아를 기억함, 7월호, 8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122

병 고침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67

이혼, 딸린 에이치 옥스, 5월호, 70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7월호, 45

보배롭고 지구히 큰 약속을 요구함

스펜서 제이 롬디, 11월호, 16

보호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5월호, 51

살았다!, 2월호, 친6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셸리 알 클라인, 7월호, 14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벨 존슨, 7월호, 43

위험으로부터의 기적적인 탈출, 마이클 호크 디, 6월호, 친12

복음 고전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4월호, 10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콩키, 9월호, 8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기 위해 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12월호, 40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줄리 비 백, 11월호, 76

복장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제니퍼 로즈, 2월호, 친8

성전을 경외함, 폴 맨덴버그, 2월호, 10

봉사

스티븐 이 스노우, 11월호, 102

봉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4월호, 25

감독을 지지함, 조셉 스테이플스, 6월호, 30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어, 10월호, 45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6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월호, 113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2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이온, 9월호, 45

봉사, 스티븐 이 스노우, 11월호, 102

빈 수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친2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2월호, 25

성스러운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2월호, 친2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8월호, 25

성탄절 손님, 그웬 에스 존슨, 12월호, 친10

슈츠 감독님을 지지함, 세일라 킨드레드, 2월호, 친12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118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윌터 에프 곤잘레스, 11월호, 53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74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워스런, 5월호, 45

일본인 8 형제, 타다시 키나, 6월호, 44

작은 봉사 행위, 9월호, 친6

작은 일에서, 마이클 제이 테, 11월호, 35

주님 봉사하셨네, 엘리자베스 릭스, 9월호, 친4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월호, 25

한 사람에게 한 양동이씩, 제임스 더블류 리치, 2월호, 46

한 특별한 지도자,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다 실바, 1월호, 37

함께 견뎌, 리차드 시 에즐리, 11월호, 9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줄리 비 벡, 11월호, 109

부활

그분은 살아 계시다!, 엘리자베스 릭스, 4월호, 4
친4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22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4
친2
제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브렌다 헨트, 4월호, 45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21

분노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2

브릴란테스, 조셉 레이

번제, 9월호, 40

빈 수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4
친2

빌레나, 제비어 가마라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7월호, 45

빔, 브리트니 존스

팬팔과 구도자 소개, 3월호, 44

빔

공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5월호, 51

人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라?

요시히코 기꾸찌, 5월호, 97

사랑 (또한 봉사 참조)

나오미 후그, 스위스 뮌헨스타인, 김벌리 웹, 1월호, 4
친10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룩, 11월호, 70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2
숨겨진 왜기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2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1월호, 73
큰 계명, 조셉 비 위스린, 11월호, 28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캐롤
시 워즈, 12월호, 46
하나님의 딸들, 수잔 더블류 테너, 5월호, 106
함께 견뎌, 리차드 시 에즐리, 11월호, 9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됩

12월호, 25

사망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펜 모랄레스 곤잘레스, 1월호, 36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22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21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아감

아담 시 울슨, 10월호, 8

사이 좋게 지내기

2월호, 43

산에서 뜨인 돌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3

산체스, 엠마 이 산체스

엄마의 냉장고, 2월호, 8

살았다!

2월호, 4
친6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로버트 디 헤일즈, 2월호, 34

상징주의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지, 2월호, 26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2월호, 14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브루스 디 포터, 11월호, 31

상호부조회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코니 디 캐논, 3월호, 26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줄리 비 벡, 11월호, 109

생활에 빛을 더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6월호, 16

서리, 롱 닌 과 필리스 건더슨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1월호, 26

선교 사업 (또한 개종 참조)

19살에 알았더라면 ..., 로저 테리, 3월호, 38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12월호, 43

교장실에서의 정의반 반지, 레베카 에프, 3월호,
4
친16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데니스 버크스, 2월호, 45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6월호, 41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데니스 엘 맥대니얼,
4월호, 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11월호, 33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엘리자베스
릭스, 10월호, 4
친4

놀라운 일들, 오거스토 비., 2월호, 4
친10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룩, 11월호, 70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이온,
9월호, 45

몽골, 신앙의 초원 지대, 돈 엘 설, 12월호, 18
선교사 친구들, 게리 제이 콜먼, 3월호, 4
친14

선교사 훈련원, 3월호, 9

선교사의 하루, 아담 시 울슨, 3월호, 16

선지자에 대한 간증,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0월호, 19

신병, 헨리 라스무센, 12월호, 47

작은 일에서, 마이클 제이 테, 11월호, 35

절대로 늦지 않았음, 실비아 테 모스쿠이
말도나도, 3월호, 45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노리에 츠바키 무라에,
3월호, 47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폴
벤텐버그, 4월호, 18

축구나, 선교 사업이나?, 알렉산드레 마차두
바스콘셀루스, 6월호, 34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레베카 밀스
홈과 브래드 윌콕스, 3월호, 36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답, 그리고어 에이
타데오시안, 10월호, 38

팬팔과 구도자 소개, 브리트니 존스 빔, 3월호,
44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11월호, 46

한 사람의 모범, 브루스 시 하펜, 4월호, 36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 3월호, 10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알 발 존슨,
8월호, 38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2

선교사 친구들

게리 제이 콜먼, 3월호, 4
친14

선교사 훈련원

3월호, 9

선교사의 하루

아담 시 울슨, 3월호, 16

선지자

개혁적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얼
시 탕기, 5월호, 29

선지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4
친2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2월호, 4
친13

선지자에 대한 간증,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0월호, 19

지상의 선지자,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12월호,
38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공기,
9월호, 8

선지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4
친2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2월호, 4
친13

선지자에 대한 간증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0월호, 19

선택의지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5월호, 94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로버트 디 헤일즈, 2월호, 34

선택하라, 6월호, 48

선택하라
6월호, 48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치, 2월호, 26

설, 돈 엘
몽골, 신앙의 초원 지대, 12월호, 18
한 장의 팻플릿, 8월호, 7

설, 돈 엘과 줄리 위털
몽골 울란바토르의 온돈잡츠, 10월호, 친14

성경 읽기
3월호, 친6

성경의 기적
앤 러셀 벨라드, 5월호, 80

성공을 위한 웃임기
2월호, 7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벤하민 데이 오요스, 9월호, 친10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셜리 알 클라인, 7월호, 14

성스러운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2월호, 친2

성신 (또한 영감 참조)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톰 페리, 6월호, 50
경고의 음성, 테리 리드, 8월호, 친10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엘리자베스 리스, 8월호, 친4
교화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에이 로저 메릴, 1월호, 38
속 사람을 살게 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키스 케이 힐버그, 11월호, 37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5월호, 78
약간의 폭력?, 8월호, 22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14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66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로저 비 울스틴흠, 4월호, 46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3월호, 친13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우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55

성약
너희는 거둬야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19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주모리, 5월호, 76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12

성전 및 성전 사업 (또한 가족 역사 참조)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11월호, 95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로버트 디 헤일즈, 2월호, 34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8월호, 25

성전으로 오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10월호, 14

성전을 경외함, 폴 밴덴버그, 2월호, 10

성전의 축복, 폴 이 컬리커, 7월호, 친14

성전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평화, 2월호, 20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8월호, 44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2월호, 14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엔리케 알 팔라벨라, 11월호, 14

이제 됐다,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7월호, 친10

지상에서의 평화, 10월호, 49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8월호, 25

성전 카드
9월호, 친15

성전으로 오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10월호, 14

성전을 경외함
폴 밴덴버그, 2월호, 10

성전의 축복
폴 이 컬리커, 7월호, 친14

성전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평화
2월호, 20

성찬
거룩한 땅,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친2
기독교 교리의 근원, 토마스 비 그리피스, 8월호, 12
기억하십시오, 엘리자베스 리스, 6월호, 친4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4월호, 10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6월호, 친8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친9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4월호, 10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6월호, 친8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친9

성탄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호, 24
성탄절 손님, 그웬 에스 존스, 12월호, 친10
어머니의 성탄절 생쥐, 베티 르바론 모스테르, 12월호, 44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인물과 해설, 팻 그레이엄, 12월호, 친8

잊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톰슨, 12월호, 44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12월호, 친2

최고의 성탄절 선물, 12월호, 8

함께 나누는 성탄절,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디아즈, 12월호, 17

성탄절 손님
그웬 에스 존스, 12월호, 친10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셉 비 위스린, 1월호, 친13

소년단 활동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폴 밴덴버그, 4월호, 18

속 사람을 살게 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키스 케이 힐버그, 11월호, 37

속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용서, 회개 참조)
기독교 교리의 근원, 토마스 비 그리피스, 8월호, 12
생활에 빛을 더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6월호, 16
속죄에 대한 감사, 볼프강 에이치 폴, 6월호, 13

속죄에 대한 감사
볼프강 에이치 폴, 6월호, 13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54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재현남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39

쇼테, 제인 맥브라이드
이제 됐다, 7월호, 친10

수아레스,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1월호, 46

순수함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80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11월호, 51

순증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5월호, 94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10월호, 2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함, 스펜서 제이 콘디, 11월호, 16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2월호, 친13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48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9월호, 7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분부 청녀 회장단과의 대화, 수잔 더블류 테니, 줄리 비 벡, 일레인 에스 돌튼, 10월호, 32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5월호, 89

주님께 드리는 약속, 존 비 덕슨, 5월호, 14

숨겨진 썰기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2

쉬지 말고 턱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15

쉬츠 감독님을 지지함

세일라 킨드레드, 2월호, 친12

스노우, 스티븐 이

봉사, 11월호, 102

스미스, 알렉스와 마크 애쉬얼스트 맥기

조셉 스미스의 일지, 12월호, 32

스미스, 조셉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5월호, 78

조셉 스미스의 일지, 마크 애쉬얼스트 맥기와 알렉스 스미스, 12월호, 32

한 천사 조셉에게 와, 안나 존슨과 에이 로렌스 리온, 4월호, 친13

스바르츠버그, 제이드

구주를 인식함, 9월호, 31

지상의 선지자, 12월호, 38

스코트, 리차드 지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5월호, 8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11월호, 90

스태일스, 조셉

감독을 지지함, 6월호, 30

스톤, 주디

가정복음교사와 기도함, 10월호, 47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의 생애에서

농장에서 일함, 1월호, 친6

모범의 힘, 6월호, 친6

살았다!, 2월호, 친6

성경 읽기, 3월호, 친6

신권 열쇠를 지님, 12월호, 친6

약한 영향력에 대항함, 7월호, 친6

어려움을 극복함, 10월호, 친6

작은 봉사 행위, 9월호, 친6

지도자가 됨, 8월호, 친6

피아노 연주, 4월호, 친6

스펜서 더블류 킴블: 행동하는 사람

가렛 에이치 가프, 1월호, 28

시

앨리스 포크너, 4월호, 44

시스터나스, 대니얼

개척자들을 기억했습니다, 7월호, 42

시온으로 집합함

7월호, 친8

시작까지 견뎌

마리아 카네바, 10월호, 29

시험의 밤

리하이 엘 크루즈, 9월호, 30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7

신권 열쇠를 지님

12월호, 친6

신명

헨리 라스무센, 12월호, 47

신성한 본성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5월호, 94

하나님의 딸들, 수잔 더블류 태너, 5월호, 106

신앙 (또한 간증, 개종 참조)

가족의 신앙, 엘리자베스 리스, 7월호, 친4

두려움의 반대, 패트리샤 알 존슨, 1월호, 친14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쿠엔틴 엘 룩, 11월호, 70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함, 스펜서 제이 콘디, 11월호, 16

생활에 빛을 더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6월호, 16

생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셉 비 위스틴, 1월호, 친13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월호, 16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엘리자베스 리스, 2월호, 친4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날 엘 앤더슨, 5월호, 74

저는 어느 날 니파이전서 7:12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10월호, 22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7월호, 4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12월호, 12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18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캐서린 에드워즈, 3월호, 32

흔들리는 세상 속의 확고한 기초, 아담 시 올슨, 6월호, 8

신앙, 가족, 사실, 그리고 열매

엠 러셀 벨라드, 11월호, 25

신앙개조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콩 닌 서리와 필리스 건더스, 1월호, 26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월호, 16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1월호, 삽입물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엘리자베스 리스, 2월호, 친4

신약전서 (또한 신약전서의 교훈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치, 2월호, 26

신약전서, 1월호, 친8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약전서의 여인들, 6월호, 26

신약전서

1월호, 친8

신약전서의 교훈

속죄에 대한 감사, 볼프강 에이치 폴, 6월호, 13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3월호, 41

회개의 기쁨,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4월호, 15

신회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게리 제이 콜먼, 5월호, 92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40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3

심심풀이

경전 속의 영웅들, 에리 반 더 그래프, 8월호, 친13

십일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라?, 요시히코 기꾸찌, 5월호, 97

쉬지 말고 턱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15

십일조 및 기타 현금, 4월호, 39

오렌지색 자동차, 엘린 시 로비슨, 6월호, 42

하나님의 법을 배움, 패트리샤 알 존슨, 4월호, 친8

하늘 문,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드, 4월호, 40

십일조 및 기타 현금

4월호, 39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48

아마도, 카를로스 에이치

어머니의 영향력, 4월호, 친14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1월호, 46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넬 존슨, 7월호, 43

아이디어 목록

사이 좋게 지내기, 2월호, 43

유혹을 극복함, 1월호, 35

아이어링, 헨리 비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11월호, 66

오늘, 5월호, 89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우십니다,
11월호, 55

아이오아를 기억함

캐플라인 에이치 벤즐리, 7월호, 8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친2

악마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2

악한 영향력에 대항함

7월호, 친6

안식일

놓쳐 버린 월드컵, 수자나 알베스 데 멜로,
6월호, 37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벤하민 데이 오요스,
9월호, 친10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줄리 워델, 9월호, 친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초점을 두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할 수 있나요?, 8월호, 32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줄리 워델, 9월호, 친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초점을 두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할 수
있나요?

8월호, 32

안전한 귀환 지점

다이어 에프 후흐트도르프, 5월호, 99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5월호, 78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

콩 닌 서리와 필리스 건더슨, 1월호, 26

애쉬얼스트 맥기, 마크와 알렉스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일지, 12월호, 32

앤더슨, 닐 엘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5월호, 74

약간의 폭력?

8월호, 22

양부

로리 리스, 1월호, 45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8월호, 44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러셀 엠 넬슨, 2월호, 친15

어려움을 극복함

10월호, 친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6월호, 친8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줄리 워델, 9월호, 친8

어린이 (가족 참조)

어머니

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줄리 비 벡,
11월호, 76

어머니의 영향력,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4월호, 친14

어머니의 성탄절 생귀

베티 르바론 모스테르, 12월호, 44

어머니의 영향력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4월호, 친14

얼리드, 실비아 에이치

내 양을 먹이라, 11월호, 113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게리 제이 콜먼, 5월호, 92

엄마의 냉장고

엠마 이 산체스 산체스, 2월호, 8

에드워드, 캐서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3월호, 32

에즐리, 리차드 시

함께 걸딤, 11월호, 9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월호, 11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118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9월호, 7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수잔 더블류 태너, 줄리 비 벡, 일레인 에스 돌튼,
10월호, 32

여성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약전서의
여인들, 6월호, 26

역경

두려워 말라, 엘리자베스 리스, 1월호, 친4

함께 걸딤, 리차드 시 에즐리, 11월호, 9

영, 브리감

개혁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얼
시 텅기, 5월호, 29

영감

귀를 기울여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3월호, 25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10월호, 46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키 오먼, 2월호, 44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넬 존슨, 7월호, 43

양부, 로리 리스, 1월호, 45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4월호, 47

영감을 주는 생각들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

영구 교육 기금

나의 마지막 기회, 루이스 멜라, 8월호, 45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제임스 웰치, 9월호, 26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3월호, 46

영적 생각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제슨, 5월호, 11

영적인 재탄생

너희는 거듭 나야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5월호, 19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1월호, 14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4월호, 47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 성찬, 성탄절, 속죄 참조)

가장 위대한 선물, 엘리자베스 리스, 12월호,
친4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9월호, 31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벡, 5월호,
109

두려워 말라, 엘리자베스 리스, 1월호, 친4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나니, 아담 시 울슨, 1월호,
20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치,
2월호, 26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엘리자베스 리스, 2월호,
친4

영감을 주는 생각들,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

영적 생각,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3월호, 4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2월호, 25

온 세상의 구주, 4월호, 7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랜드, 11월호, 40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12월호, 12

주님 봉사하셨네, 엘리자베스 리스, 9월호, 친4

흔들리는 세상 속의 확고한 기초, 아담 시 울슨,
6월호, 8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3월호, 4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2월호, 25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인물과 해설

팻 그레이엄, 12월호, 친8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66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5월호, 89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1월호, 73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11월호, 53

오렌지색 자동차

엘윈 시 로비슨, 6월호, 42

오면, 재기

마지막 순간의 변화, 2월호, 44

오펜쇼, 다니엘

기도로 하나가 되어, 8월호, 46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친2

옥스, 딸린 에이치

이혼, 5월호, 70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11월호, 104

은 세상의 구주

4월호, 7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8월호, 17

울슨, 아담 시

만물이 그분을 증거하니, 1월호, 20

사원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킴, 10월호, 8

선교사의 하루, 3월호, 16

춤출 수 있는 자유, 4월호, 32

칠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8월호, 친14

함께 끌기, 9월호, 12

흔들리는 세상 속의 확고한 기초, 6월호, 8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거룩한 땅, 토마스 에스 몬슨, 9월호, 친2

더욱 쉽게 용서함,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친2

빈 수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10월호, 친2

선지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8월호, 친2

성스러운 빛, 제임스 이 파우스트, 2월호, 친2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토마스 에스 몬슨, 4월호, 친2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친2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친2

치명적인 마카페케,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친2

왕 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59

왕스커드, 게리 알

기억할 수 없는 선물, 9월호, 47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2월호, 14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로저 비 울스턴흙, 4월호, 46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엔리케 알 팔라벨라, 11월호, 14

외설물

경고의 음성, 테리 리드, 8월호, 친10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11월호, 51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아론 엘 웨스트, 9월호, 32

악한 영향력에 대항함, 7월호, 친6

외설물과의 싸움, 7월호, 34

외설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덴 그레이, 7월호, 38

외설물과의 싸움

7월호, 34

외설물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씀

덴 그레이, 7월호, 38

용기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7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호, 친2

용서 (또한 회개 참조)

더욱 쉽게 용서함,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친2

숨겨진 죄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2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67

우정 팔찌, 제니퍼 로즈, 3월호, 친8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67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11월호,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클라우디오 디 지빅, 11월호, 98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2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준 것

라켈 엠 가르시아-레부타르, 6월호, 38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1월호, 18

우선순위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닐 엘 앤더슨, 5월호, 74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104

우정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어, 10월호, 45

내 양을 먹이라,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월호, 113

선교사 친구들, 게리 제이 콜먼, 3월호, 친14

우정 팔찌, 제니퍼 로즈, 3월호, 친8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레베카 밀스 흙과 브래드 윌콕스, 3월호, 36

우정 증진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8월호, 2

우정 팔찌

제니퍼 로즈, 3월호, 친8

우흐트도르프, 디이터 에프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2월호, 친13

안전한 귀환 지침, 5월호, 99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나?, 11월호, 18

울스턴흙, 로저 비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4월호, 46

워델, 줄리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함, 9월호, 친8

워델, 줄리와 돈 엘 설

몽골 울란바토르의 온돈잡츠, 10월호, 친14

워스린, 조셉 비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1월호, 친13

인생의 교훈, 5월호, 45

큰 계명, 11월호, 28

워츠, 캐롤 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12월호, 46

웨스트, 아론 엘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9월호, 32

웰치, 제임스

영원한 결혼으로의 개심, 9월호, 26

웰치, 존 더블류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2월호, 26

웹, 김벌리

나오미 후그, 스위스 뮌헨스타인, 1월호, 친10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74

위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11월호, 95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기 오면, 2월호, 44

위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탈출

마이러 호크 디, 6월호, 친12

윌콕스, 러셀과 브래드

문자 메시지의 노예가 되지 말라, 8월호, 18

윌콕스, 브래드와 레베카 밀스 흙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3월호, 36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40

유혹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엘 휘트니 클레이튼, 11월호, 51

벌레가 입안으로 날아든다면, 아론 엘 웨스트, 9월호, 32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2
유혹을 극복함, 1월호, 35
치명적인 마카페케,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친2

유혹을 극복함
1월호, 35

음악 (또한 노래, 찬송가 참조)

시, 엘리스 포크너, 4월호, 44
태버나클의 영,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26

의기소침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2월호, 22

의사소통 (또한 문자 메시지를 보냄 참조)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16

의식

성전으로 오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10월호,
14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5월호, 112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에이지 데이비드 버튼, 5월호, 32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닐 엘 앤더슨, 5월호, 74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약전서의
여인들**

6월호, 26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이제 됐다

제인 맥브라이드 쇼테, 7월호, 친10

이혼

달린 에이치 옥스, 5월호, 70

이혼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62

이혼, 달린 에이치 옥스, 5월호, 70

인도주의적 지원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마리아마 칼론, 8월호,
35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위스린, 5월호, 45

일

19살에 알았더라면 ..., 로저 테리, 3월호, 38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고든 비
힝클리, 3월호, 22

일본인 8 형제

타다시 키나, 6월호, 44

일지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66

조셉 스미스의 일지, 마크 에쉬얼스트 맥기와
알렉스 스미스, 12월호, 32

질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아담 시 울슨,
8월호, 친14

읽고 쓰는 능력은 삶을 향상시켜 줌

10월호, 26

읽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톰슨, 12월호, 44

ㅈ

자기만족 (미루기 참조)

자살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2월호, 22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 본부 청년 및 청년 회장단,
1월호, 8

자애 (또한 사랑 참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2월호, 25

끝없는 미소, 레이 골드럽, 9월호, 친12

작고 단순한 일

크리스토펜 골든 이세, 11월호, 78

작은 봉사 행위

9월호, 친6

작은 일에서

마이클 게이 테, 11월호, 35

재능

축구냐, 선교 사업이냐?, 알렉산드레 마차두
바스콘셀루스, 6월호, 34

춤출 수 있는 자유, 아담 시 울슨, 4월호, 32

피아노 연주, 4월호, 친6

재림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9월호, 31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0월호, 25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18

재정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팅기, 4월호, 26

저는 깨끗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60

**저는 어느 날 니파이전서 7:12을 읽었는데,
저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10월호, 22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3월호, 친13

저드, 다니엘 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11월호, 93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일레인 피어슨, 9월호, 46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12월호, 친2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코니 디 캐넌, 3월호, 26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1월호, 친2

절대로 늦지 않았음

실비아 데 모스쿠이 말도나도, 3월호, 45

정직

정직한 모건, 비키 에이치 버지, 3월호, 친11

정직한 모건

비키 에이치 버지, 3월호, 친11

제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브렌다 헨트, 4월호, 45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7월호, 45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3

제일회장단 메시지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4월호, 2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고든 비 힝클리,
6월호, 2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3월호, 2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10월호, 2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8월호, 2

숨겨진 췌기의 위험, 토마스 에스 몬슨, 7월호, 2

영감을 주는 생각들, 고든 비 힝클리, 2월호, 2

영적 생각,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호, 2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고든 비 힝클리,
12월호,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사랑하는 목사

10월호, 삽입물

젠슨, 말린 케이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이다, 5월호, 36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12월호, 26

젠슨, 제이 이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5월호, 11

조셉 스미스의 일지

마크 에쉬얼스트 맥기와 알렉스 스미스, 12월호,
32

존 형제의 금식헌금

그레그 버고인, 9월호, 44

존스, 그웬 에스

성탄절 손님, 12월호, 친10

존스, 패트리샤 알

두려움의 반대, 1월호, 친14

하나님의 법을 배움, 4월호, 친8

존슨, 안나와 에이 로렌스 리온

한 천사 조셉에게 와, 4월호, 친13

존슨, 알 발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8월호, 38

존슨, 자넬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7월호, 43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델린 에이치 옥스, 11월호, 104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로버트 디 헤일즈, 12월호, 12

주 예수를 닮으려고

교장실에서의 정의반 반지, 레베카 에프, 3월호, 친16

놀라운 일들, 오거스토 비., 2월호, 친10

싸움은 안 돼, 앨런 에스., 2월호, 친10

주님 봉사하셨네

엘리자베스 리스, 9월호, 친4

주님께 드리는 약속

존 비 디슨, 5월호, 14

주님의 비유

7월호, 26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0월호, 25

준비

꽃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5월호, 51

선교사의 하루, 아담 시 울슨, 3월호, 16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54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5월호, 48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윌터 에프 곤잘레스, 11월호, 53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0월호, 25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11월호, 49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18

춤출 수 있는 자유, 아담 시 울슨, 4월호, 32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11월호, 46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엘 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 3월호, 10

종독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122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11월호, 49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7월호, 18

지도력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11월호, 6

지도자가 됨, 8월호, 친6

지도자가 됨

8월호, 친6

지식, 클라우드 디

예상치 못한 전야, 4월호, 47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11월호, 98

지상의 선지자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12월호, 38

지지함 (감독 참조)

지혜의 말씀

기억할 수 없는 선물, 게리 알 왕스거드, 9월호, 47

시험의 밤, 리하이 엘 크루즈, 9월호, 30

핫 초코 사건, 멜라니 마스, 12월호, 친14

진리: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반

리차드 지 스코트, 11월호, 90

진정한 자신감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 1월호, 8

질의응답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월호, 22

몇 가지 실수를 한 후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잘못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6월호, 22

복음 안에서 굳건히 남기 위해 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12월호, 40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초점을 두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할 수 있나요?, 8월호, 32

저는 어느 날 니파이전서 7:12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10월호, 22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2월호, 22

짧은 메시지

구주를 인식함, 제이드 스바르츠버그, 9월호, 31

나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음을 압니다, 모이세스 네페 모랄레스 곤잘레스, 1월호, 36

모범이 되는 공연, 빅토리아 메레니, 7월호, 47

시험의 밤, 리하이 엘 크루즈, 9월호, 30

한 특별한 지도자,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다 실바, 1월호, 37

ㅌ

찬송가

모범이 되는 공연, 빅토리아 메레니, 7월호, 47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젠슨, 5월호, 11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노리에 츠바키 무라에, 3월호, 47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런드, 5월호, 16

첫번째 시헌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젠슨, 5월호, 36

회복의 메시지, 엘 톰 페리, 5월호, 85

청녀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벡, 5월호, 109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텅기, 4월호, 26

청소년

주님께 드리는 약속, 존 비 디슨, 5월호, 1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수잔 더블류 태너, 줄리 비 벡, 일레인 에스 돌튼, 10월호, 32

진정한 자신감,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 1월호, 8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폴 밴덴버그, 4월호, 18

최고의 성탄절 선물

12월호, 8

축구나, 선교 사업이나?

알렉산드레 마차두 바스콘셀루스, 6월호, 34

춤출 수 있는 자유

아담 시 울슨, 4월호, 32

충분한 금식

릴리 엠 로리머, 9월호, 39

치명적인 마카페케

토마스 에스 몬슨, 6월호, 친2

친구 사귀기

나오미 후크, 스위스 뮌헨스타인, 킴벌리 웹, 1월호, 친10

몽골 울란바토르의 율돈잡츠, 돈 엘 설과 줄리 위델, 10월호, 친14

칠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아담 시 울슨, 8월호, 친14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팅에 사는 클라라 크리스티슨, 멜빈 리빗, 4월호, 친10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2월호, 22

친구가 친구에게

선교사 친구들, 게리 제이 콜먼, 3월호, 친14
성도들을 가득 실은 트럭, 벤하민 데이 오요스, 9월호, 친10

성전의 축복, 폴 이 켈리커, 7월호, 친14

어머니의 영향력,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4월호, 친14

친절, 고원용, 6월호, 친10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월호, 친8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레베카 밀스 휴프 브래드 윌콕스, 3월호, 36

친절

고원용, 6월호, 친10

친절

끝없는 미소, 레이 골드럽, 9월호, 친12

우정 팔찌, 제니퍼 로즈, 3월호, 친8

친절, 고원용, 6월호, 친10

함께 나누는 성탄절,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디아즈, 12월호, 17

질레 산티아고의 니콜 안투네즈

아담 시 올슨, 8월호, 친14

ㅋ

카네바, 마리아

시작까지 견뎌, 10월호, 29

칼론, 마리아마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8월호, 35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틴에 사는 클라라

크리스틴슨

멜빈 리빗, 4월호, 친10

캐년, 코니 디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3월호, 26

켈리커, 폴 이

성전의 축복, 7월호, 친14

코스타, 클라우디오 알 엠

선지자에 대한 간증, 10월호, 19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11월호, 73

코우피쉬케, 에릭 더블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11월호, 33

콘디, 스펜서 제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요구함, 11월호, 16

콜리스터, 더글러스 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11월호, 100

콜먼, 게리 제이

선교사 친구들, 3월호, 친14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5월호, 92

쿡, 메리 앤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11월호, 11

쿡, 쿠엔틴 엘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11월호, 70

크루즈, 리하이 엘

시험의 밤, 9월호, 30

크루즈, 에르메네길도 아이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6월호, 41

크리스틴슨, 크레이그 시

회개의 기쁨, 4월호, 15

큰 계명

조셉 비 워스린, 11월호, 28

클라인, 셸리 알

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도구, 7월호, 14

클레이튼, 엘 휘트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11월호, 51

키나, 타다시

일본인 8 형제, 6월호, 44

킨드레드, 세일라

마이클을 그리워함, 10월호, 친12

쉬즈 감독님을 지지함, 2월호, 친12

킴블, 스펜서 더블류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의 생애에서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블: 행동하는 사람, 가렛 에이치 가르, 1월호, 28

E

타데보시안, 그리고어 에이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담, 10월호, 38

태너, 수잔 더블류

하나님의 딸들, 5월호, 106

태너, 수잔 더블류, 줄리 비 백, 일레인 에스 돌튼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10월호, 32

태버내클 수리

9월호, 34

태버내클

광야의 태버내클, 고든 비 힐클리, 5월호, 43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재현남, 제임스 이

파우스트, 5월호, 39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5월호, 32

태버내클 수리, 9월호, 34

태버내클의 영,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26

태버내클의 추억,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41

태버내클의 영

보이드 케이 패커, 5월호, 26

태버내클의 추억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41

테, 마이클 제이

작은 일에서, 11월호, 35

테노리오, 옥타비아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11월호, 95

테리, 로저

19살에 알았다더라면 ..., 3월호, 38

툼슨, 바바라

내가 너를 군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1월호, 115

툼슨, 제리 오

잊지 못할 성탄절, 12월호, 44

특별한 증인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2월호, 친13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제프리 알 홀런드, 8월호, 친9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셉 비 워스린, 1월호, 친13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리셴 엠 넬슨, 2월호, 친15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3월호, 친13

특별한 책, 특별한 대담

그리고어 에이 타데보시안, 10월호, 38

팅기, 알 시

개척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5월호, 29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4월호, 26

II

파우스트, 제임스 이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4월호, 2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8월호, 2

변화시키는 힘, 11월호, 122

빈 수레, 10월호, 친2

생활에 빛을 더함, 6월호, 16

성스러운 빛, 2월호, 친2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5월호, 54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재현남, 5월호, 39

옥수수 밭에서의 용기, 7월호, 친2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5월호, 67

우리를 구원해 줄 힘, 1월호, 2

파우스트, 제임스 이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사랑하는 목자, 10월호, 삽입물

파킨, 보니 디

감사: 행복으로의 길, 5월호, 34

팔라벨라, 엔리케 알

왜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회원입니까?, 11월호, 14

패커, 보이드 케이 및 엘 톰 페리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6월호, 50

패커, 보이드 케이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 11월호, 6
성전으로 오십시오, 10월호, 14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1월호, 14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3월호, 친13
태버나클의 영, 5월호, 26

패튼 여사-계속되는 이야기

토마스 에스 몬슨, 11월호, 21

페리, 엘 톰 및 보이드 케이 패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6월호, 50

페리, 엘 톰

당신의 말은 당신을 나타냅니다, 7월호, 30
표준을 높임, 11월호, 46
회복의 메시지, 5월호, 85

페이스, 글렌 엘

알고 계십니까?, 5월호, 78

팬팔과 구도자 소개

브리트니 존스 빔, 3월호, 44

평범한 인간, 특별한 부름

브루스 알 맥쿱기, 9월호, 8

평화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차드 지
스콧, 5월호, 8
성전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평화, 2월호, 20

평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105; 11월호, 108

포스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호, 24
선교사 훈련원, 3월호, 9
선택하라, 6월호, 48
성공을 위한 웃임기, 2월호, 7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월호,
11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9월호, 7
온 세상의 구주, 4월호, 7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8월호, 17
지상에서의 평화, 10월호, 49

포크너, 앨리스

시, 4월호, 44

포터, 브루스 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11월호, 31

폴, 볼프강 에이치

속죄에 대한 감사, 6월호, 13

표준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월호, 22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 본부 청년 회장단과의
대화, 수잔 더블류 태너, 줄리 비 백, 일레인
에스 돌튼, 10월호, 32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11월호, 46

플로레스, 힐도 로실로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10월호, 46

피아노 연주

4월호, 친6

피어슨, 일레인

저를 잘 돌볼 거예요, 9월호, 46

ㅎ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캐롤 시 워즈, 12월호, 46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를 도우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11월호, 55

하나님에 대한 의무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폴
벤덴버그, 4월호, 18

하나님의 말씀

수잔 더블류 태너, 5월호, 106

하나님의 법을 배움

패트리샤 알 존스, 4월호, 친8

하나님의 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니엘 케이 저드, 11월호, 93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1월호, 25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캐서린 에드워즈, 3월호, 32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테이비드 에이 베드나, 10월호, 친8

하나됨

귀걸이, 빅터 마카로브, 1월호, 12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9월호, 25
함께 끌기, 아담 시 올슨, 9월호, 12

하늘 문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4월호, 40

하넨, 마리 케이 및 브루스 시 하넨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됨,
8월호, 26

하넨, 브루스 시

한 사람의 모범, 4월호, 36

학대 (의사소통 참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9월호, 25

한 사람에 한 양동이씩

제임스 더블류 리치, 2월호, 46

한 사람의 모범

브루스 시 하넨, 4월호, 36

한 장의 팜플릿

돈 엘 설, 8월호, 7

한 천사 조셉에게와

안나 존슨과 에이 로렌스 리온, 4월호, 친13

한 특별한 지도자

사리아 데 바로스 페레이라 다 실바, 1월호, 37

함께 견뎌

리차드 시 에즐리, 11월호, 9

함께 끌기

아담 시 올슨, 9월호, 12

함께 나누는 성탄절

다이애나 멜리나 알보르노즈 디아즈, 12월호, 17

함께 나누는 시간

가장 위대한 선물, 엘리자베스 리스, 12월호,
친4
가족의 신앙, 엘리자베스 리스, 7월호, 친4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임, 엘리자베스
리스, 8월호, 친4
그분은 살아 계시다!, 엘리자베스 리스, 4월호,
친4
기억하십시오, 엘리자베스 리스, 6월호, 친4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엘리자베스
리스, 10월호, 친4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엘리자베스
리스, 3월호, 친4
두려워 말라, 엘리자베스 리스, 1월호, 친4
신앙으로 주님 따르라, 엘리자베스 리스, 2월호,
친4
주님 봉사하셨네, 엘리자베스 리스, 9월호, 친4

합당성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5월호,
57
영감을 주는 생각들, 고든 비 힝클리, 9월호, 2
표준을 높임, 엘 톰 페리, 11월호, 46

핫 초코 사건

멜라니 막스, 12월호, 친14

헌트, 브랜다

제 아들들도 살아 있습니다, 4월호, 45

헤이트, 데이비드 비

성찬-희생 제물, 4월호, 10

헤일즈, 로버트 디

개인적인 계시: 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11월호,
86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2월호, 34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5월호, 4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12월호,
12

홀런드, 제프리 알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6월호, 56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10월호, 40
성찬을 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8월호,
친9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11월호, 40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7월호,
18

천사의 방언, 5월호, 16

홀스트롬, 도널드 엘

지금 행하십시오, 11월호, 49

활동 촉진

마이클을 그리워함, 세일라 킨드레드, 10월호,
친12

존 형제의 금식헌금, 그레그 버고인, 9월호, 44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알 발 존슨,
8월호, 38

회개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데니스 엘 맥대니얼,
4월호, 8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벡, 5월호,
109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1월호, 80

몇 가지 실수를 한 후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다시 잘못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6월호, 22

변화시키는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11월호,
122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브루스 디 포터,
11월호, 31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4월호, 10
안전한 귀환 지점,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월호, 99

외설물과의 싸움, 7월호, 34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클라우디오
디 지빅, 11월호, 98

지금 행하십시오, 도널드 엘 홀스트롬, 11월호,
49

회개와 개심, 러셀 엠 넬슨, 5월호, 102

회개의 기쁨,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4월호,
15

회개와 개심

러셀 엠 넬슨, 5월호, 102

회개의 기쁨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4월호, 15

회복

산에서 뜨인 돌, 고든 비 힝클리, 11월호, 83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제리 제이 콜먼,
5월호, 92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프리 알 홀런드, 11월호, 40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5월호, 83

회복의 메시지, 엘 톰 페리, 5월호, 85

회복의 메시지

엘 톰 페리, 5월호, 85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줄리 비 벡, 11월호, 109

후기 성도의 소리

가장 소중한 선물,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12월호, 43

가정복음교사와 기도함, 주디 스톤, 10월호, 47
강도, 책, 그리고 간증, 마일린 에스피노사 미라,
1월호, 44

개척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대니얼 시스터나스,
7월호, 42

교회로 가는 길, 스티븐 베어, 10월호, 45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데니스 버크스, 2월호, 45
그는 책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에르메네길도
아이 크루즈, 6월호, 41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다니엘 오펜쇼, 8월호, 46
기억할 수 없는 선물, 제리 알 왕스거드, 9월호,
47

길베르토 아저씨의 기억력, 에스터 라비브 드
베루벤, 10월호, 44

나의 마지막 기회, 루이스 멜라, 8월호, 45
누가 내 머리를 돌렸을까?,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10월호, 46

레모네이드와 한 조각의 빵, 아나벨라 디 레아온,
9월호, 45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키 오먼, 2월호, 44
시, 앨리스 포크너, 4월호, 44

신병, 헨리 라스무센, 12월호, 47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마르셀리노
페르난데스 레볼로스 수아레스, 1월호, 46
아이들을 물에서 꺼내라, 자넬 존슨, 7월호, 43

양복, 로리 리스, 1월호, 45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성전 결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오바니 메디나,
8월호, 44

어머니의 성탄절 생쥐, 베티 르바론 모스테르,
12월호, 44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3월호, 46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4월호, 47
오렌지색 자동차, 엘인 시 로비슨, 6월호, 42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로저 비
울스턴훔, 4월호, 46

잊지 못할 성탄절, 제리 오 톰슨, 12월호, 44
저를 잘 돌볼 거예요, 일레인 피어슨, 9월호, 46

절대로 늦지 않았음, 실비아 데 모스쿠이
말도나도, 3월호, 45

제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브ренда 헌트, 4월호,
45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비어 가마라
빌레나, 7월호, 45

존 형제의 금식헌금, 그레그 버고인, 9월호, 44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노리에 즈바키 무라에,
3월호, 47

팬팔과 구도자 소개, 브리트니 존즈 빔, 3월호,
44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요?, 캐롤
시 워츠, 12월호, 46

한 사람에게 한 양동이씩, 제임스 더블류 리지,
2월호, 46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

3월호, 10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알 발 존슨, 8월호, 38

흠, 레베카 밀스와 브래드 윌콕스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3월호, 36

흔들리는 세상 속의 확고한 기초

아담 시 올슨, 6월호, 8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다

마리아마 칼론, 8월호, 35

희생 (또한 십일조 참조)

번제, 조셀 레이 브릴런테스, 9월호, 40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브루스 디 포터,
11월호, 31

춤출 수 있는 자유, 아담 시 올슨, 4월호, 32
충분한 금식, 릴리 엠 로리머, 9월호, 39

힐비그, 키스 케이

속 사람을 살게 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11월호, 37

힝클리, 고든 비

광야의 태버나클, 5월호, 43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6월호, 2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11월호, 62

더욱 쉽게 용서함, 3월호, 친2

산에서 뜨인 돌, 11월호, 83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3월호, 22
선지자 따라, 8월호, 친2

쉬지 말고 턱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5월호,
115

영감을 주는 생각들, 2월호, 2

영적 생각, 9월호, 2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12월호, 2

저는 깨끗합니다, 5월호, 60

제가 알고 있는 것들, 5월호, 83

폐회 말씀, 5월호, 105; 11월호, 108

19살에 알았더라면 ...

로저 테리, 3월호, 38